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요구

2025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윤 원 경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요구

배 지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윤 원 경

인 준 서

윤원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1월

심사위원장 전 홍 주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권 정 윤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배 지 희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어려움 및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2.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3.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아버지들의 요구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현재 영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아버지 10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연구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이 있는 아버지 10명이다. 면담은 개별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나,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기를 요청하는 일부 아버지들의 경우 어머니가 면담에 함께 참여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 1인당 2~3회가 이루어져 총 23회를 실시하였다. 면담형식은 반구조화된 질문과 상황에 따른 개방형 질문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면담 전사본과 면담 노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면담 내용을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 생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며 자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교사와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스마트 알림장, 관찰수첩, 전화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여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자녀와의 친밀감이 형성되었으며, 부부간의 유대감 강화와 양육 파트너십이 증진되었고, 교사와의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서 부모참여에 대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둘째,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1순위로 여기거나 아버지의 의도를 오해하는 등 아버지를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으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교사의 업무 가중 및 부담에 대한 우려의 마음과 교사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였다.

더불어 아버지들의 바쁜 생활로 인하여 자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 교사와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추가로 영유아교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기주장 위주로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소통을 지속하기 어렵게 느꼈으며,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버지들은 중재와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다.

셋째,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녀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였다. 또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오래 근무하거나 담임교사가 자주 바뀌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일부 아버지들은 교사와 마주하고 대면하는 것이 어색하여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면담에 아버지가 배제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원장과 교사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였고, 담임교사가 아닌 원장 및 원감, 연장반 및 방과후 교사처럼 다양한 교사와의 소통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일부 아버지들은 남자 영유아교사가 있다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들은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유아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기업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아버지들이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아버지들의 요구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를 해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영유아교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연구자	7
II. 이론적 배경	11
1. 의사소통	11
1) 의사소통의 정의 및 개념	11
2) 의사소통의 방법	13
2.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의사소통	16
1)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의사소통의 유형	16
2)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의사소통 내용	21
3. 영유아교사-부모 간 의사소통	23
1) 영유아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23
2) 영유아교사-아버지 간 의사소통의 필요성	27
4. 선행연구	31
1)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교사 대상 연구	31
2)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어머니 대상 연구	35

3)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아버지 대상 연구 38

Ⅲ. 연구방법 43

1. 연구 참여자 43

2. 연구절차 50

 1) 예비연구 50

 2) 본 연구 51

Ⅳ. 연구결과 56

1.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 56

 1)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아버지들의
 이해와 교류 56

 2)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아버지들의
 긍정적 변화 72

2.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겪는 어려움 ... 81

 1) 아버지를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 81

 2) 교사와의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85

 3) 소통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 93

3.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아버지들의 요구 ... 98

 1) 영유아교사에 대한 요구 98

 2)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111

 3) 사회적 측면에서의 요구 117

V. 논의 및 결론	125
1. 논의	125
2. 결론 및 제언	137
참고문헌	142
ABSTRACT	157
부록	161

표 목 차

<표 1>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 및 분류	12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배경	45
<표 3> 개별 면담의 주요 질문	52
<표 4> 최종 범주	5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세계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성장한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설명한다. 이 중에서 영유아와 가까이에서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microsystem)는 영유아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크게 영향을 미친다. 미시체계는 영유아가 속한 가장 직접적인 환경으로 부모, 가정, 친구, 교사, 학교, 지역사회 등을 말하며,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함께 포함한다.

영유아와 가장 가깝게 생활하며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 역시 영유아들의 발달과 교육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 및 기관 적응을 돕는 기본적인 요소이다(김영희, 박지현, 2014; 나정숙 외, 2016). 이 외에도 교사-부모 간 협력 및 소통은 교사의 교수 효능감 향상에 기여하고(유현정, 안지혜, 2010), 유아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줄이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등(임우영, 안선희, 2011)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2022년도 기준 우리나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보면 만 1~5세 영유아의 89.4%가 영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23). 이는 대부분의 영유아가 부모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하루 중 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를 둘러싼 주변 세계에서 부모와 교사는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부모와 교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로서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오남 외, 2002) 교사와 부모는 유아에게 일어나는 일상에서의 다양한 사건들과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이미자, 문혁준, 2008) 일관된 관점으로 유아를 교육해야 한다. 이에 교사와 부모는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노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이라는 의미가 있다(국립국어원, 2016). 즉,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은 함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열린 마음으로 같은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다.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형식적, 비형식적으로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의미한다(정윤귀, 2006). 형식적 의사소통은 정기적인 부모 면담과 같이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며 공식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소통하는 방법을 일컫는다(손영숙, 1995). 비형식적인 의사소통은 등·하원 시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나 특별히 전달해야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는 것부터 편지, 메모, 알림장, 전화 등의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까지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교사와 학부모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알림장 앱을 사용이나(김진아, 2015) 이메일, 홈페이지 등(강명주, 2019; 김선진 외, 2017)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다.

교사들은 영유아들이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배우고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권연희, 2017; 배울미, 조유진, 2014; 우진경, 2022; 조미영, 2008). 영유아교사와 부모 간의 협력은 부모-교사 간 신뢰를 높이고, 영아의 문제행동을 줄여주는 등(고혜진, 2009; 심수아, 2021)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신뢰와 가정과의 연계,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에 관한 동향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며 영유아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서현선 외, 2019). 그러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89편 중 11편에 불과했으며, 아버지 단일대상연구는 3편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Cabrera 등(2000)은 아버지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욱 다각화되었다고 설명하며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영유아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공수안, 여종일, 2019; 유지현, 박정현, 2018; 이배, 김경숙, 2013; 정은혜, 최은실, 2018; 최미숙, 송순옥, 2014) 공격성과 외현화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다(이승은, 2018; 정미라 외, 2016). 그리고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아동은 사회성이 높고(박선희, 2017; 서석원, 이대균, 2014) 또래 유능성과(박인경, 2017; 최미숙, 송순옥, 2014) 사회적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정미라 외, 2016).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영유아에게 여러 형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어머니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육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과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같은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된다.

과거에는 주로 어머니가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며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22)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 육아휴직자 중 2.7%에 불과했던 반면, 2021년에는 24.1%의 아버지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으로 육아에 동참하는 아버지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도 더 많은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 또한 2020년 2월 28일부터 법을 개정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고용노동부, 2019), 고용노동부는 2022년 9월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양성평등 인식향상 프로그램인 ‘아빠 교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3).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뿐 아니라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관련된 동향 연구(라혜미, 이희영,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이후에 아버지 양육 참여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사회·정서 변인을 다룬 연구와 함께 유아의 놀이나 자아 등의 다양한 변인을 다루는 연구들 또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고(김근혜, 김혜순, 2013; 서석원, 이대균, 2014; 정은희, 2014),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김지원 외, 2022), 특히 어머니의 역할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도경민, 이희영, 2019). 유아의 발달 및 행복감 등과 관련된 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의 사회성(서석원, 이대균, 2014), 행복감(정희정, 2019), 그리고 사회도덕성(정금자, 박미라, 2013)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고, 성역할 개념에 있어서 양성성이 높다는 결과(나현정, 최미숙, 2017; 이영희, 2006; 임지희, 2014)도 보고되었다. 유아의 발달에 양육자가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 형성되는 고정관념은 유아의 잠재능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성역할의 모델링을 경험하며 양성평등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아버지의 상징놀이 참여는 유아의 미디어중독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이지인, 2020), 아버지와 함께 놀이하는 유아는 인지적 놀이성과 즐거움을 더 많이 표현하였다(장수경, 안효진, 2014).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은 유아들은 놀이성과 자기조절능력이 높고(이배, 김경숙, 2013)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이승은, 2018)으로 보고되었다. 2005년 이후 많이 이루어진 사회정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자녀의 행복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정희정, 2019), 아버지가 자녀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사소한 대화라도 자주 나누면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익새, 남은영, 2015). 이렇듯 여러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가정과 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아버지들도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일방적 전달방식의 소통뿐 아니라 직접 대면하는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강명주, 2019). 그러나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의 소통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영유아교사와 아버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를 단일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 교사, 또래 등 주변 사람들이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이정미, 이지영, 2022)나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김지원 외, 2022)에 관한 연구 또는 아

버지와 영유아교육기관과의 관계에서 부모참여 또는 아버지 교육과 관련된 요구조사 및 경험과 관련된 연구(박명효, 2012; 배지희 외, 2016; 신성숙, 2017; 이선미, 2010; 장문규, 2005) 등이 있었다. 아버지와 영유아교사 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김선진 외, 2017; 신명숙, 2012; 양성연, 2010; 조유진, 2017)나 전자알림장 앱을 통한 아버지와 유아 교사 간의 의사소통 현황 및 아버지의 인식(강명주, 2019)을 알아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로 이루어져 심층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와 유아 교사 간의 의사소통에 관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 친구처럼 다정한 아버지, 편안한 부모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나 양육지식이 부족하여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부모참여를 통해 유아 교사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기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오영희, 2019). 교사 역시 아버지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기회를 자주 얻게 되면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동시에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아버지들의 격려를 통해 교사로서의 성취감을 느낀다(박은혜, 2020). 양성연(201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발견하여 교사와 아버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뒷받침하였다. 이처럼 교사-아버지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직접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아버지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의 의사소통에서 아버지들은 어떤 경험을 하며, 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떤 요구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버지들의 관점에서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이 가정 내 생활

및 영유아와의 관계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아버지들이 영유아교사와 소통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더욱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모참여, 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셋째,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아버지들의 요구는 어떠한가?

3. 연구자

본 연구자는 유아교육현장에서 10년간 근무하며 여러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연령 및 유형의 학부모들과 의사소통을 경험하였다. 특히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직접 기관으로 등·하원을 하는 곳에 근무하며 자연스럽게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짧게 상담형식의 대화를 나누는 등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였다. 소통의 빈도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더 많았지만, 맞벌이 부모의 경우 아버지들도 자주 등·하원을 담당하여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다. 학기 초에는 어색한 듯 인사하면서도 아

이에게 전해 들은 아버지의 일상 에피소드나 아버지 자랑을 했던 이야기들을 전하며 조금씩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교사와의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는 짧은 등·하원 시간에도 유아의 발달이나 가정에서의 걱정거리, 양육 방법 등을 질문하며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빈도가 잦아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발달 및 양육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공식적인 학부모 면담 시에도 가능하면 부모가 함께 오기를 자주 권하였다.

처음 오는 아버지들은 어색해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나 사진으로만 어렵듯이 전해 알던 공간에 직접 방문한 이후 아이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거나, 면담 이후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부모참여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자 또한 교사로서 어머니들과의 의사소통 시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한 면담이 아버지들과의 의사소통 시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들 또한 아버지와 함께 면담에 참여하니 육아의 방향성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당시 열린 어린이집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다양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하였다. 작게는 매월 진행되는 열린 어린이집 프로그램부터 크게는 플리마켓, 가족 환경 동요대회, 프로젝트 전시회, 오픈하우스 등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아버지들의 참여 및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 생활에 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진행한 프로그램들로 구 내 열린 어린이집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가정과의 소통이 영유아들의 기관 생활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

다. 이후에도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교사 대표 임원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및 학부모들과 함께 사안을 논의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후 연구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다양한 연구논문을 접하며 영유아교육 기관과 부모가 협력하는 것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가족지원과 부모교육 세미나를 수강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교육 및 참여프로그램은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어머니’라는 인식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참여란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부모와 영유아교육기관, 즉 교사가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제 더 이상 ‘부모’는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한국의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들과의 협력관계는 어머니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연구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라는 문구로 시작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아버지와 영유아교육기관의 협력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다. 최근 TV 프로그램들의 제목들만 훑어보더라도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하고 나하고’ 등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일상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직장생활로 인한 육아 참여의 어려움 또한 아버지들만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버지

또한 어머니와 동등한 부모로서 육아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데, 아버지 역시 영유아교육기관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들은 직장생활로 인해 영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할 기회가 적으나 정기적인 상담이나 등·하원 시에는 교사와 마주치며 간단한 인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시간이 연구자에게는 영유아의 가정생활과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아버지와의 라포형성으로 신뢰감도 쌓을 좋은 기회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이 아버지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학부모와 소통하는 교사들 역시 나의 학부모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아버지들의 생각을 알게 된다면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려운 교사들도 조금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버지들과 영유아교사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들의 입장에서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어떤 경험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본다면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에도 도움을 주고, 학부모들과의 의사소통 시 교사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정의 및 개념

인간은 서로 소통하며 각자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살아간다. 소통(疏通)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는 뜻과,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풀이를 지닌다. 나아가 의사소통(意思疏通)이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국립국어원, 2019).

의사소통은 크게 언어적 의사소통(verbal communication)과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언어와 관련된 어휘, 문법, 화용적 측면에서 대화를 일컫는다(안미경, 2019).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몸동작, 손짓, 표정, 눈짓, 신체 접촉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또한 자연스럽게 함께 이루어진다(홍희광, 1992).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나 넓게 보면 언어적 소통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소통을 의미한다. 정정승(2006)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단어 없는 의사소통, 각 개인이 목소리를 이용하지 않고 의사소통할 때 생기는 현상들, 눈짓·표정·제스처·신체 접촉·시간의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지니며 학습되지 않은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다. 동시에 내용의 통제와 왜곡이 어렵고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Condon & Yousef,

1975; 심규성 2007에서 재인용). 이처럼 비언어적인 표현들은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언어적 의사소통인 음성언어보다도 앞서 의미를 형성한다고도 볼 수 있다(안인숙, 2013).

일상 대화를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언어적 의사소통은 30%만 이루어지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70%가 이루어진다(정정승, 2006; 홍희광, 1992). 또한 30%를 차지하는 언어적 의사소통 중에서도 강세, 어조 등이 주는 표현 효과가 순수 언어표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는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내용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분류는 학자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수반되는 음조나 강세, 억양, 말투 등과 함께 몸짓, 제스처, 표정, 자세, 침묵 등의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을 모두 포함한다.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분류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 및 분류

학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 및 분류
홍광희(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동작(body motion) / 손짓(hand gesture) / 얼굴표정(Facial expression) / 눈짓(eye behavior) / 신체접촉(touch) • 개인에게 특유한 음질(voice qualities) • 웃음소리, 하품, 기침, 콧방귀 소리 등의 음성특징(vocal characteristic)을 포함하는 준언어적 요소(paralanguage) • 사람과 사람과의 공간(interpersonal space) • 의복, 화장 등 기타 환경요인(environmental factors)

-
- 정정승(2006)
- 얼굴과 눈 : 얼굴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표정, 대상물을 쳐다보는 행위 또는 반응에 관한 피드백을 구하는 행동 등.
 - 몸짓과 자세 : 아이디어, 의도, 느낌 등의 전달, 감정 표현 동작 (affect display)을 사용하여 감정의 강도 반영, 자세와 지위의 관계성 내포
 - 신체접촉 : 감성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신체접촉 및 악수 등의 문화적 표현방식
 - 공간과 환경 : 주변환경과 공간적 배치 및 상대방과의 거리
-

- 안인숙(2013)
- 메타메시지(meatamessage) : 음성언어에 수반되는 강세, 높낮이, 억양, 속도, 목소리 크기 등의 준 언어적 특질. 화자의 생각, 느낌 태도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
 - 준비언어적 의사소통 : ‘침묵’과 같이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간 단계
 - 몸짓 의사소통(bodily communication) : 눈짓·손짓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
 - 접촉적 의사소통(tactile communication) : 악수, 입맞춤, 포옹 등의 표현
 - 그래픽 의사소통(graphic communication) : 그림, 사진, 도형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
-

이처럼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담지 못하는 다양한 요소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의사소통이란, 서로의 생각과 뜻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함께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까지를 모두 포함함을 알 수 있다.

2) 의사소통의 방법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면대면 소통방식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자가 아닌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딱딱한 글과는 달리 화자의 감정과 느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Condon & Yousef, 1975).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스처를 활용하거나 목소리의 변화를 사용한 재연 등 여러 가지 비언어적 의사소통 요소들을 통해 의도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안인숙, 2013).

이어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지는 않지만,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전화로 소통하는 방식이 있다. 전화는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용도로 자주 사용되며, 특히 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연락이 가능하다. 전화는 음성을 통해 말투, 어조가 함께 전달되며, 피드백의 즉시성을 지닌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매체를 통해 전달 가능하므로 면대면 접촉 방식 다음으로 매체의 풍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황하성, 이옥기, 2009).

또한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온라인상의 소통과 같은 비대면 의사소통 방식 또한 많이 사용된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실시간으로 대화하거나,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화상통화를 통해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한다. 또한 사진과 영상을 첨부하거나 이모티콘, 메시지 리액션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사전달 및 감정표현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사회적 소통망으로 불리는 SNS나 실시간 모바일 메신저(MMA)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안미경, 2019).

비대면 의사소통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통적인 대면 의사소통 시 사용되는 음성의 어조나 강

세, 억양 등 문자가 가지는 의미 이외에도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메시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화하는 상대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함께 지닌다(곽면선, 이상철, 2014). 인터넷 언어 사용 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에 관해 연구한 안미경(2019)은 문자 대화에서는 비언어적 단서가 전달되지 않아, 자칫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모티콘이나 의성어 및 의태어 등의 유희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문자 발화의 강한 느낌을 중화시켜 주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때, 상대의 체면을 낮추지 않으면서 인간관계 안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활용한다고 하였다(임혜원, 2021).

또한 최근에는 ‘메시지 리액션’ 기능이 많이 활용된다. 이는 SNS나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표현 중 하나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정보 전달과 같은 일방적인 소통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화를 마무리할 때 나타나는 ‘침묵’이 오해의 소지로 적용될 수 있어 말풍선 공감기능이나 ‘좋아요.’ 등의 메시지 리액션을 활용하여 ‘침묵’을 ‘경청’의 메시지로 변화시킨다(한승민, 김승인, 2024). 이렇듯 비대면 대화가 일상으로 녹아든 현대사회에서는 면대면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외에도 비대면 의사소통 시 이루어지는 대화도구인 문자언어 및 이모티콘, 메시지 리액션, 말풍선 공감도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면대면 의사소통,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 소통하는 전화 통화,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글과 댓글을 주고받으며 이모티콘, 메시지 리액션 등 표현방식을 포함하는 비대면 의사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의사소통

1)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유형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서로가 함께 주고받는 대화로 정의된다. 하지만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영유아들과 함께 보내고,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으므로 수시로 부모와 소통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부모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소통의 방향성, 소통의 절차와 형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소통 방향성에 따른 일방적, 쌍방적, 삼차원적 의사소통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일방적 의사소통, 쌍방적 의사소통, 삼차원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일방적 의사소통(one-way communication)이다(손영숙, 1995; Ghazvini & Readdick, 1994). 이는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가정으로 보내지는 교육계획안, 행사 안내문, 가정통신문, 소책자 또는 현관 게시판에 게시되는 안내문과 같은 지면 형식의 소통 방법이다. 이러한 일방적 의사소통은 기관의 행사 및 교육과정과 같이 안내해야 할 사항들이나 부모교육 등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된다. 일방적 의사소통 방법은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쌍방적 의사소통(two-way communication)이다(손영숙, 1995;

Ghazvini & Readdick, 1994). 이는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함께 서로 교류하는 소통방식으로 전화, 알림장, 면담, 집단모임,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소통 등을 일컫는다. 쌍방향 의사소통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피드백을 교환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의 효과가 높다(손영숙, 1995) 영유아교사와 부모가 쌍방으로 소통하는 것은 가정과 영유아교육기관 연계의 기틀을 마련하며, 개별 영유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된다(배지희, 2002). 전화상담은 직접 통화하며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기 이전에는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의사소통 방식이며(Freytag, 2001; 최미숙, 박영미, 2004), 현재에도 급한 일이 있거나 간단한 면담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쌍방향 의사소통 중 소통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면담방식이다. 이 외에도 매일 가정과 영유아의 특이 사항을 체크하고 전달하는 알림장(관찰 수첩, 스마트 알림장) 역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보이므로 쌍방향 의사소통에 해당한다.

셋째는 기관-학부모-지역사회 자원 간의 상호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삼차원적 의사소통(three-way communication)이다(Ghazvini& Readdick, 1994). Freytag(2001)는 교사와 부모의 쌍방향 의사소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삼차원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삼차원적 의사소통은 쌍방향 의사소통보다 더 다양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촉진 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Epstein(2001) 역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며,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의 학습 및 발달을 돕기 위한 가정에서의 지원과 연계를 위한 정기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사와 부모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영유아의 발달을 함께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까지도 포함해 함께

상호작용하고 소통해야 함을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삼차원적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2024 유치원 평가 가이드북에서는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공동체’를 평가 지표로 삼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하는지 등의 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24).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매뉴얼(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2024) 역시 일상적으로 학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삼차원적 의사소통은 일방적 의사소통과 쌍방향 의사소통에 비하면 자주 이루어지지 않지만, 교사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소통방식으로 작용한다.

(2) 형식과 절차에 따른 형식적, 비형식적 의사소통

소통의 절차와 형식의 측면에서 의사소통 방법을 분류하면 형식적 의사소통과 비형식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형식적 의사소통은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부모와 교사가 공식적으로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여 소통하는 방법을 일컫는다(손영숙, 1995). 형식적 의사소통으로는 집단상담, 개별상담,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활용한 부모면담, 학급 공개, 전화상담, 관찰수첩 등을 들 수 있다(정효진, 2013).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상담은 학부모 간담회, 오리엔테이션 등이다. 이러한 집단상담은 기관별 또는 학급별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때 교사는 집단상담의 진행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진행 이외에도 학부모들끼리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함께한다(이대균 외, 2010). 집단상담은

교사가 가지는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담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김희진, 2006).

부모면담은 형식적인 의사소통 중 가장 중요한 개별상담으로 학부모 상담, 부모 면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학기 초와 학기 말 연 2회 정도 이루어지며 영유아교육기관의 연간 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진행된다. 1학기 때의 영유아 상담은 영유아의 기관 적응을 돕고, 학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및 신뢰를 쌓는 데 목적을 두지만, 2학기 상담 시에는 영유아의 기관 생활에 대한 모습과 발달 정도를 학부모와 공유한다(정효진, 2013). 기본적으로 부모면담은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학부모에게는 유아교육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육아에 대해 배우는 학습의 시간이 되고, 교사에게는 담당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올바른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교사로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알림장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 교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통 방식이다(김민정, 김갑순, 2012).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마트 알림장을 사용하는 영유아교육기관이 많아졌다. 스마트 알림장은 영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등·하원을 관리하고, 알림장, 앨범, 공지사항, 투약 의뢰서, 귀가동의서, 식단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박민경, 2017). 스마트 알림장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인 수첩 형식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와 여러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유구중, 2020). 특히 2019년 이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비대면 소통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 알림장의 사용량은 더욱 늘어났다. 스마

트 알림장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사진 및 동영상, 문서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의 학습 및 활동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를 학부모와 동시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발달 및 교육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부모와 교사는 바쁜 현실 속에서 시간적·공간적으로 만남에 대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스마트알림장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폭 넓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부모와 교사가 긍정적인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임주희, 2016).

스마트 알림장 이외에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영유아교육기관들도 있다. 하지만 한 연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시 단지 필요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져 교사와 학부모 간의 올바른 협의와 상호작용을 위한 소통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기도 하여(정혜승, 2010), 다양한 방법의 소통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둘째, 비형식적 의사소통은 형식적 의사소통과 달리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소통방법이다. 비형식적 의사소통은 주로 영유아들의 등·하원 시 이루어지며 학부모-교사, 학부모-기관의 원장·원감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Anthony와 Pollack(1985)은 부모가 영유아교육기관에 영유아들을 데려다주거나 데리러 가는 시간에 의사소통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특히 이 시간은 매일 면대면으로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고, 아이의 생활공간을 살피고 경험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아이의 양육을 교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 준다(김민혜, 2018).

이러한 비형식적인 의사소통은 형식적인 의사소통에 비해 일상에서 더

욱 편안한 상태로 이루어지므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시간에는 교사가 알아야 할 내용을 부모에게 질문하고, 하루 동안 아이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전달한다. 또한 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으로도 활용되어 자연스럽게 라포와 신뢰형성이 가능하므로,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전선희, 2015). 부모와 교사 간의 비형식적인 의사소통은 가정 연계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부모참여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소통방식이다(Endsley & Minish, 199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은 소통의 방향성에 따라 일방적, 쌍방적, 삼차원적 의사소통으로 나뉘며, 소통의 형식에 따라 형식적인 의사소통과 비형식적인 의사소통으로 구분된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형식적인 의사소통은 집단상담, 개별상담, 부모면담, 전화상담, 알림장, 지면 안내문 등의 형식으로 공식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비형식적인 의사소통은 등·하원 시와 같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편안하게 이루어진다.

2)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 간 의사소통 내용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기관의 행사 및 교육과정,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및 건강 상태, 교우관계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학부모와 함께 나누고 소통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교사 간의 의사소통 내용은 아동의 발달과 행동특성에 집중되어 있으나, 소통이 자주 이루어질수록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된다(이미자, 문혁준, 2008).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내용과 관련된 문헌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이주경, 1996; 정윤귀, 2006; Endsley & Minish, 1991; Winkelstein, 1981). 이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사와 학부모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대화 내용이다. 이는 일상을 나누며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대화로 사교적인 소통이라고도 일컫는다. 일상적인 소통으로는 등·하원 시 매일 이루어지는 인사, 일상적인 안부 묻기, 어머니와 교사의 신변에 대한 짧은 대화 등이 포함된다(이주경, 1996; Endsley & Minish, 1991).

둘째는 영유아교사와 학부모가 영유아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을 말한다. 영유아에 관한 내용의 소통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내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으로는 영유아의 놀이, 교육활동, 식생활, 배변, 수면, 기분, 건강 상태 등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영유아-교사, 또래 관계, 전반적인 발달 및 행동 변화, 문제행동, 영유아의 진학 및 학교 준비도 등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된다(이주경, 1996; Endsley & Minish, 1991). 최미숙과 박영미(2004)는 유아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사 간의 의사소통 시 부모와 교사 모두 유아의 친구 관계, 원에서의 하루 일과, 교사-유아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가장 많은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셋째는 부모와 교사가 가정에 관한 내용을 소통하는 것이다. 이는 영유아가 가정에서 보이는 생활모습, 부모 또는 주 양육자의 자녀 양육법, 아동의 가족 환경 등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교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은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서 개별 유아에 대해 알지 못했던 중요한 정보와 의미를 얻는다(우진경, 2022). 교사와 부모가 나누는 가정에 관련된 내용 중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은 영유아에 관한 내용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소통주제이다(최미숙, 박영미, 2004).

넷째는 학부모와 교사가 영유아교육기관의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하는 것이다. 이는 기관 운영 및 교육철학, 행사 안내, 영유아교육기관 및 교사

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내용의 소통을 말한다. Winkelstein은 의사소통의 내용에 따라 사교적, 정보적, 의사결정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였는데, 유아 및 기관의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나누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기관과 정보적 의사소통, 의사결정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Winkelstein, 1981; 이지연, 2022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24), 또는 최근 학부모가 제시한 의견 중 수용한 사례가 있는지(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2024)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시에는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는 일상적인 내용부터 영유아의 기분 및 건강 상태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들의 생활 및 또래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하여 소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와 부모가 가진 양육관은 어떠한지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이 외에도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및 안내 사항과 같은 기관의 정보에 관한 내용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영유아교사-부모 간 의사소통

1) 영유아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영유아는 가정에서의 양육과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을 통해 발달하고 성장한다. 영유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끼치는 교사와 부모는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개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과 훈육을 일관

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 또한 유치원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24),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서도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2024). 여기서 원활할 소통이란, 쌍방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실행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을 위해 공동양육자로서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관계로 볼 수 있다. 영유아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가정에서의 경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돕는다. 교사와 부모는 영유아에 대한 지식을 서로 교환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조현진, 2016). 부모는 가정의 경험을 교사와 나눔으로써 교사가 유아의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고, 부모 또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Bredenkamp & Shepard, 1989; Gelfer, 1991). 또한 부모는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녀가 학습한 내용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 역시 가정에서의 경험을 새로운 학습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영유아교사-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영유아가 다양한 영유아교육기관의 프로그램과 가정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Kraft & Dougherty, 2013; 조현진, 2016). 영유아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이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것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부모와 교사의 소통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셋째, 영유아교사-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영유아에게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과 학습을 위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부모의 기본적 의무에 해당한다(Epstein, 1996). 교사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이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부모는 교사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영유아가 가정에서도 흥미롭고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고, 개별 영유아에게 적합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유아교육기관은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양육방식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부모에게 양육 신념을 가지도록 도우며 실천적인 양육 행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촉진시킨다(이선애 외, 2024).

넷째, 교사 또한 개별 영유아의 가족 가치를 이해해야 그들의 가족문화와 양립할 수 있는 교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Fields et al., 2023). 모든 가정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각자의 가치관을 지니며, 이는 가정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가정의 교육 가치관에 대해 부모와 교사가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은 가정과 기관에서의 다양한 자극과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다섯째, 영유아교사-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올바르게 평가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배율미, 조유진, 2014). 부모는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교사 역시 가정에

서의 생활 모습을 부모를 통해 전달받고 개별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우진경, 2022).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영유아에게 필요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교실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영유아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부모에게 영유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영유아에게 개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부모에게 알릴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가 현재 어느 발달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 영유아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도움이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한다.

여섯째, 영유아교사-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Bronfenbrenner, 1979; Gelfer, 1991).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특성뿐 아니라 전반적인 영유아들의 발달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영유아들의 발달 단계에 필요한 과업을 이루기 위한 육아 팁 등을 공유하며 부모들은 가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부모에게도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육아효능감을 높인다. 교사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를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배윌미, 조유진, 2014).

일곱째, 영유아교사-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부모-교사 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한다(서은주, 홍순옥, 2016). 교사와 부모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으면 영유아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협력적 파트너십은 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도록 하고, 교사는 영유아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전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소통하는 어머니들은 교사 및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감을 형성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

보영, 김현주, 2013). 더불어 개별 영유아의 담임교사뿐 아니라 기관의 원장 또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 가정의 학부모들과 우호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여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평소에 학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학부모의 불만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한다(서석원, 이대균, 201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교사 간의 의사소통은 영유아의 생활이 가정과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유아는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으로 영유아교육기관의 프로그램과 가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교사와 부모의 격려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경험하게 된다. 부모는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며,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받아 자녀의 올바른 발달 수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교사 역시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영유아의 기관 생활에 대해 더 폭넓게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며 학습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부모와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나아가 둘 사이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바람직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2) 영유아교사-아버지 간 의사소통의 필요성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현대사회가 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양육 시간 및 참여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최지은, 김현경, 2019).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영유아교육기관과의 소통 역시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영유아들이 주 양육자가 주로 어머니였던 과거와 달리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버지 역시 주

양육자로서 교사와 소통하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취업을 한 가구에서의 아버지들이 양육 참여가 더 높다는 연구(서미정, 최은실, 2017; 안수영, 이명신, 2020)에서와 같이 이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와 영유아교사 간의 의사소통 역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영유아교사-아버지 간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는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지원해 줄 수 있다. 아버지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도맡아 가장으로서 바쁘게 생활한다. 이로 인해 일-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없는 점에서 양육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양육에 참여하기 시작한 아버지들은 본인의 무지를 인식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배움을 통해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김용익, 김낙홍, 2015).

교사는 영유아와 하루 대부분을 함께 지내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박익새와 남은영(2015)은 아버지가 자녀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자주 대화를 나누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한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발달을 돕기 위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이때 자녀의 발달단계와 요구를 제대로 알고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전문가로서 영유아를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시 가지는 고민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영유아기 아버지들은 자녀발달 특성에 따른 부모 역할, 놀이 방법, 건강한 애착 형성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하였는데(김용훈, 이경숙, 2022) 이 같은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은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의 경험이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아버지는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아버지가 영유아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녀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Erikson(1950)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영유아기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버지 역시 영유아와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영유아가 아버지와의 신뢰감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은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 아버지가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관심사와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양육방식을 적용하면, 영유아는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는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유아의 발달에 아버지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버지는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공수안, 여종일, 2019; 유지현, 박정현, 2018; 이배, 김경숙, 2013; 정은혜, 최은실, 2018; 최미숙, 송순옥, 2014),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박선희, 2017; 서석원, 이대균, 2014). 또한 아버지-자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며(황희숙 외, 2012), 또래 유능성과(박인경, 2017; 최미숙, 송순옥, 2014), 유아의 놀이성을 높여주고(이배, 김경숙, 2013), 성역할 고정관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영실, 박용한, 2020; 나현정, 최미숙, 2017). 특히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동의 공격성을 낮추고(이승은, 2018)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신계연, 장경은, 2024; 정미라 외, 2016). 이처럼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의 소통은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도 일관된 생활지도에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넷째, 아버지는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아버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들은 양육 참여도와 양육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함께 증가하였다(서수진, 도미향, 2019). 그리고 자녀와 놀이하고 일상적 돌봄을 많이 할 경우, 아버지로서의 역할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을 더 높게 느꼈으며(권혜진, 2010), 같은 맥락에서 공동양육을 할 때 결혼 만족도도 증가하였다(이미현, 2015).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 공유하면서 자녀의 발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역시 부모 역할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박주미, 전유영, 2024), 영유아교사와 자녀에 관해 소통하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할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의 소통은 영유아의 기관 적응에 도움을 준다. 특히 어린 연령의 아동일수록 낯선 교육기관에서의 생활 및 부모와의 분리 경험이 함께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준다(김명화, 김수향, 2023). 아버지와 교사가 상호 간에 자녀의 일상과 발달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할 때, 영유아들은 가정과 기관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느끼며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영유아교육기관에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다.

여섯째, 교사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와 소통을 통해 영유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양육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 교사는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통해 영유아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행동 양상과 발달 단서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직접 듣고 함께 소통하는 것은 영유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요구를 파악하

고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녀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직장생활로 자녀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적은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아버지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결혼 만족도를 높여주는 등 아버지 자신의 행복감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아버지들은 가정과 기관의 연결고리가 되어 영유아의 기관 적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통해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 역시 어머니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개별 영유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4. 선행연구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영유아교사 대상 연구와 부모 대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영유아교사와 부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모 대상 연구는 대체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소수의 연구만이 아버지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이에 영유아교사와 부모 간의 선행연구들을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교사 대상 연구

영유아교사는 부모와 함께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책임지는 중요한 양육 파트너이다. 교사는 유아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돌봄을 교육적 환경에서 확장하고, 유아가 사회·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는 하루 대부분을 영유아와 함께 보내며 아동의 일상생활 및 발달단계를 관찰하고 부

모와 소통한다. 국내에서 발표된 1995년부터 2018년까지의 영유아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영유아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서현선 외, 2019).

학부모와 영유아교사 간의 의사소통과 관계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교사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었다(권연희, 2017; 김보영, 김현주, 2013; 김은혜, 여선주, 2024; 노상경, 2012; 배율미, 조유진, 2014; 이현정, 김낙홍, 2017; 정계숙, 2011; 최서영, 이대균, 2014; 한진원, 2020). 교사는 크게 유아교사와 원장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중에는 초임교사의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들(배지희 외, 2012; 우서경 외, 2016; 채영문, 이성주, 2019)도 포함되어 있다.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학부모들의 무례한 행동이나 비협조적인 자세, 자신의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과잉보호 등의 지나친 걱정, 교사 불신 또는 무관심 등이 학부모와의 소통 및 협력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김보영, 김현주, 2013; 김은혜, 여선주, 2024; 최서영, 이대균, 2014). 이 외에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솔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가 있을 때 소통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고, 특히 부모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배율미, 조유진, 2014). 또한 교사들은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부모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은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 시 부모들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등의 반응을 보일 때, 이어 자신의 면담기술과 지식이 부족할 때, 아버지, 조부모 등 다양한 면담 대상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질 때 어려움을 느꼈다(배지희 외, 2013).

이현정과 김낙홍(2017)은 교사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때 감정노동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데, 그중 부모와 관련된 어려움이 영유아교사의 감정노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계숙(2011)은 교사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가끔이지만, 어려움과 관련된 변인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 관련 어려움이 가장 높고 편파가 크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사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이를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면담 시 교사들은 긴장과 불안감 및 상담 준비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고, 상호 간의 소통 시 답답함과 회의를 느끼거나 난처함을 느낀다고 한 우진경(2022)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진원(2020)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의사소통 성향 중 ‘사교성’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사교성은 ‘유연한, 표현적인, 비구조화된, 솔직한, 친절한, 관심이 많은, 자유분방한’ 등의 하위 변인을 포함하고 있어, 외향적이고 학부모와 유아의 가정에 관심이 많으며 문제상황 시 유연하게 대처하는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어려움을 적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상경(2012) 또한 부모의 요구에 대해 교사의 수용 수준이 낮거나 소통 기술이 부족할 때, 또는 교사 자신이 자녀 양육 경험이 없을 때 유능감의 한계를 느껴 부모-교사 간의 의사소통을 저해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렇듯 교사들은 교사 자신의 성향이나 성격, 능력과 관련해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와 태도 등에 의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다.

교사뿐만 아니라 기관의 원장 또한 비슷한 측면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 원장들은 부모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 과도한 역할기대, 개별적 요구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사명감이 하락하고 부모들과의 관계성이 상실된다고 하였다(김서연 외, 2020; 안승희, 이희선, 2024). 또한 최근에는 영유아교육기관으로 들어오는 학부모의 불만 민원과 관련된 어려움들과 관련된 연구들도 많았다(박사빈, 2019; 서석원, 이대균, 2015; 조명주, 장정윤, 2022). 영유아교육기관과 교사 에 대한 불만 민원은 영유아교육기관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기관을 운영하는 데 사기가 저하되는 큰 문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민원 중 ‘교사가 내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는 점’과 ‘내 아이의 사진 수가 다른 아이보다 적은 것’ 등(조명주, 장정윤, 2022) 교사의 관심 및 내 아이와 관련된 사소한 것들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교사들에게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온라인·비대면 소통과 관련된 연구들도 조금씩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서은영, 서현, 2018; 이병호, 2014; 이조은, 조희숙, 2015; 전선영, 2015). 스마트 앱을 활용한 의사소통은 기존 의사소통이 가지는 제약점을 개선할 수 있고, 교사와 어머니 간의 상호 친밀감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장점을 지닌다(전선영, 2015). 또한 유아에 대한 빠른 정보교환 및 상담이 가능하고, 원 생활에 대한 안내가 용이하며(서은영, 서현, 2018), 교사 측면에서도 편리성, 관계 형성, 친근한 교사상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이병호, 2014).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무 부담, 시간 부족, 사생활 침해, 답글 작성의 부담감 등의 어려움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의 모색 또한 요구된다고 하였다(서은영, 서현, 2018; 이병호, 2014).

교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가정과의 연계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었다(최서영, 이대균, 2014). 서석원과 이대균(2014)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해결하기보다는 평소에 학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야기하며, 끊임없는 소통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들 역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경력과 상관없이 부모 면담과 관련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그중에서도 부모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익히기, 갈등 상황 대처 방법 알기 등의 교육이 가장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서은주, 홍순옥, 2016). 우진경(2022)은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상담 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면담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대화의 즐거움을 느끼며, 교류를 통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학부모들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위안을 얻음과 동시에 학부모의 인정을 통한 보람과 자기만족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Bredekamp와 Shepard(1989)가 교사와 부모가 유아에 대한 지식을 서로 교환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유아의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교사 대상 선행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연구대상으로는 일반 영유아교사뿐 아니라 초임 교사, 기관의 원장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주제들은 학부모들의 불만 민원과 온라인·비대면 소통과 관련되어 있었다. 연구결과 교사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부모 면담과 관련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시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2)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어머니 대상 연구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교사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학부모 중 어머니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더 많으므로, 자

연스럽게 ‘학부모=어머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명확하게 어머니라는 대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살펴본 선행연구들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연구에서는 장애 유아의 어머니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방명애, 황성엽, 2008; 양진희, 2012)에 관한 연구나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서종옥, 곽승주, 2018; 우정순, 2016)들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어머니 간 의사소통, 상호작용,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보았다. 먼저 유아 교사와 어머니 간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노상경, 2012; 서현 외, 2012; 이귀옥, 이주경, 1998; 이미자, 문혁준, 2008; 정계숙, 2011; 최미숙, 박영미, 2004). 또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어머니-교사 간의 의사소통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알아보는 연구(배인자, 위수경, 2004; 이지영 외, 2018), 어머니의 보육지식과 교사-어머니의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안선희, 2010)들도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중점으로 하는 연구는 아니나 교사와 어머니와의 관계나 협력 등에 미치는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영아 교사를 포함하는 연구 또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신인정, 곽승주, 2020; 이서영, 이유미, 2024). 또 관찰수첩 또는 스마트 알림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어머니-교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사영숙, 이대균, 2017; 전선영, 2015; 조해경 외, 2011).

특히, 선행연구에는 의사소통의 빈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교육 수준이 높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들이 교사와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으며(안선희, 2010), 취업모보다 비취업 모가 의사소통 태도가 더 높았다(이지영 외, 2018). 또한 교사와 빈번하게 의사소통하는 어머니들이 소통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어머니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가 더 높은 사회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배인자, 위수경, 2004). 그리고 영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한 기간이 길고, 교사와의 소통을 자주 하는 어머니들이 보육 지식수준도 높게 나타났는데, 안선희(2010)는 의사소통의 유형으로는 등·하원 시 담임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특별활동이나 행사 참석, 정기적 개별 면담 등의 순으로 많이 소통한다고 하였다. 위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의사소통의 빈도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학부모들 또한 교사들과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자녀에게 미치는 불이익에 대한 염려, 교사와의 소통 기회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최서영, 이대균, 2014). 교사와 어머니 간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알아본 노상경(20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압박감과 조부모와 같은 대리양육자들이 교사와 소통 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오해로 인해 담임교사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진희(20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 및 기술 부족이 교사와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선생님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아 교사와 어머니 의사소통에 대한 상호인식을 알아본 최미숙과 박영미(2004)의 연구에서는 교사들보다 어머니들이 의사소통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현 외(201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와 파트너가 되는 시간’과 같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유아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 시 각각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고, 교육을 개발한

다면 교사와 부모 서로에게 가장 좋은 파트너이자 상생의 관계 또한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어머니 대상의 선행연구들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의사소통의 빈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 또한 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긍정적인 소통은 교사와 함께 교육하는 양육자로서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아버지 대상 연구

현재까지 이루어진 교사-부모 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어머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양육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아버지의 의사소통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양육의 역할이 어머니 혹은 여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함께 나누는 역할이어야 한다. 영유아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과 관련된 동향 연구에 따르면 1995년부터 국내에서 13년간 발표된 학술지 및 학위논문 중 단 3편만이 아버지를 단일대상으로 하고 있다(서현선 외, 2019).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학부모가 연구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함을 보여준다.

현대의 아버지들은 전통적인 아버지와는 달리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또한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자녀의 양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와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연구한 논문은 교사

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수가 현저히 적었다. 학술 논문에서는 아버지와 유아 교사 간 의사소통의 실태 및 요구분석에 대한 연구와(김선진 외, 2017), 부모와의 협력작업에서 아버지들을 연구에 적극적으로 포함해 바라본 연구(전선희, 2015) 등이 있었다. 학위논문에서는 아버지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좀 더 찾을 수 있었는데, 영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아버지-교사 간 의사소통연구(신명숙, 2012; 양성연, 2010; 조유진, 2017)와 전자알림장 앱을 통한 아버지와 유아교사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강명주, 2019)가 있었다.

아버지와 교사와의 의사소통의 인식 및 실태, 요구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와 아버지 간의 의사소통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양성연, 2010), 최근 전자알림장 앱을 활용한 아버지-교사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강명주(2019)의 연구에서는 전자알림장 앱을 사용하는 아버지가 67%이고, 주 1회 미만으로 소통한다고 답하였다. 덧붙여 만 35세 미만의 아버지들이 교사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주 양육자이거나, 등·하원을 아버지가 담당하는 경우의 의사소통의 실시 정도와 만족도가 더 높았다(신명숙, 2012; 조유진, 2017).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높거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이 높았는데(강명주, 2019; 양성연, 2010), 아버지들의 일반적 특성변인에 따라 살펴본 연구에서는 맞벌이하지 않는 아버지, 남아의 아버지, 주 양육자인 아버지는 가정에서 생활에 관한 소통 요구가 높고, 기관의 학급 정원이 높을수록 원 운영에 대한 의사소통 요구가 높다고 하였다(조유진, 2017).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아버지들은 그 필요성과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은 적게 이루어졌고, 소통 방법 역시 일방적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김선진 외, 2017; 신명숙, 2012; 조유진, 2017). 아버지들이 면대면 방식의 대화보다 일방적인

소통을 선호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아버지들은 직장 업무로 인해 교사와 대면 시간이 맞지 않으며, 어머니를 통해 원의 이야기를 전달받고,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에 참여기회가 적기 때문이다(신명숙, 2012).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의 대표적인 소통 방법으로 스마트 알림장의 활용이 주를 이루는데, 아버지들은 쌍방향 의사소통 중에서도 개인 알림장 및 쪽지 방식의 소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교사들은 등·하원 시 대화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하여(김선진 외, 2017) 서로 간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영아교사-아버지 간의 의사소통을 연구한 조유진(2017)은 자녀의 교사와 쌍방향 의사소통 요구 또한 높았다고 하며, 특히 자녀가 남아인 아버지들이 다른 아버지들에 비해 쌍방향 의사소통을 더 많이 요구한다고 하였다.

교사-아버지 간의 의사소통 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원 생활에 관한 대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에서의 생활, 그리고 원 운영에 대한 순으로 이루어졌다(김선진 외, 2017; 신명숙, 2012). 아버지들은 자녀의 친구관계, 기분 및 건강 상태, 문제행동, 성장과 발달상태, 놀이 및 교육활동 등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강명주, 2019; 김선진 외, 2017; 조유진, 2017).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의 활동자료 및 사진을 보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강명주, 2019; 조유진, 2017).

부모와의 협력작업을 하는 과정을 연구한 전선희(2015)는 부부가 같이 상담에 참여하면 육아에 대해 부부간의 이견조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 충돌이 생기는 의견 차이도 교사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 중재자 및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기관 및 자녀의 교사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아버지 간의 의사소통 역시 어머니와는 별개로 꼭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김낙홍(2011)은 최근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생계부양자 또는 훈육자와 같은 전통적 아버지 역할에서 벗어나 자녀의 놀이상대자, 상담자, 정서지원자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 환경 및 제도가 뒷받침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대의 아버지들은 과거와는 달리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녀와 친해질 기회가 적어,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와의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를 기대하고 있다(배지희 외, 2016).

서현선 외(2019)는 영유아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 연구에서 아버지를 고려하는 연구가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영유아교육기관 또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영유아의 아버지가 지향하는 역할의 교육적 의미를 함께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영유아교육기관과도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영유아의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하고 책임을 공유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줄 수 있으며, 교사와 어머니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학부모의 대상이 어머니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아버지 대상 연구는 어머니 대상 연구에 비하여 현저히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연구 주제로는 부모와의 협력작업, 실태 및 요구, 전자알림장 앱을 이용한 의사소통 등이 이루어졌다. 아버지와 교사와의 의사소통은 2010년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횟수 역시 초반연구에서는 1년에 1~2회로 보여진 반면, 최근 연구에서는 스마트알림장을 활용하거나 자녀의

등·하원시간에 교사와 소통하는 아버지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요구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와 영유아교사 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아버지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은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대화를 통해 깊은 내면의 정보를 얻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은 모든 피면담자에게 유사한 주요 질문을 함으로써 연구문제와 관련된 중심 내용을 다루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궁금한 점을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김영천,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녀를 영유아교육기관에 보내고 있으며,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들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돕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거주하며 자녀가 현재 영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버지들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시에는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연구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사례를 수집하였다.

이에 현재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자녀를 기관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평소 교사와 의사소통 경험이 있었던 아버지들을 추천받았고, 추가로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더 다양한 연구 참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눈덩이표집법은 인간관계나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연구 참여자를 만나는 방식으로(김영천, 2016), 평소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주변의 아버지를 추천받거나 소개받는 방식으로 2차 또는 3차 표집대상을 선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의 경험을 알아보는 연구이므로 현재 자녀를 영유아교육기관에 보내면서,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의사소통은 형식적, 비형식적 면담과 대화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유아교사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의사소통을 한 경험이 최소 5회 이상인 아버지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자녀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아버지들의 영유아교사와의 경험이 다를 수 있으므로 0~5세까지 다양한 연령 및 성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포함되도록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정계숙, 2011), 현재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버지들을 모두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이름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에 제시된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배경

아버지	자녀가 경험한 영유아 교육 기관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아버지의 학력 및 연령	아버지 직업	맞벌이 여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
가희 아버지	어린이집(가정) 유치원(사립)	만 5세(여)	대졸 (만 41세)	회사원	O	부모면담 8회 참석 / 전화상담 자주 / 등·하원 시 비형식적 의사소통 주 5회 / 비대면 소통(앱) 경험 有
라엘 아버지	어린이집 (가정, 국공립) 유치원(사립)	만 4세(여)	대졸 (만 40세)	회사원	X	부모 참여 수업 有 / 비대면 소통(앱) 경험 有
리아, 재아 아버지	어린이집 (민간, 국공립)	만 5세(여) 만 4세(남)	대졸 (만 36세)	회사원	O	전화 상담 경험 有 / 등·하원 시 비형식적 의사소통 주 2-3회 / 비대면 소통(앱) 경험 有
민준 아버지	어린이집(가정)	만 2세(남)	대졸 (만 40세)	자영업	O	입소 상담 2회 / 등·하원 시 비형식적 의사소통 주 5회 / 비대면 소통(앱) 경험 有
소울 아버지	어린이집 (국공립)	만 4세(여)	대졸 (만 44세)	공무원	O	부모 참여 수업, 열린 어린이집 참여 경험 有 / 부모면담 8회 참석 / 등·하원 시 비형식적 의사소통 주 5회 / 비대면 소통(앱) 경험 有
세아, 채아 아버지	어린이집(민간) 유치원(사립)	만 4세(여) 만 2세(여)	석사 (만 36세)	교사	O	부모 참여 수업, 열린 어린이집 참여 경험 다수 / 등·하원 시 비형식적 의사소통 주 5회 / 비대면 소통(앱) 경험 有
예준, 예지 아버지	어린이집 (가정, 민간)	만 3세(남) 만 1세(여)	대졸 (만 36세)	회사원	X	입소 상담 3회 / 전화 상담 1회 / 등·하원 시 비형식적 의사소통 주 1회 / 비대면 소통(앱) 경험 有

은유, 은찬 아버지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사립)	만 6세(여) 만 4세(남)	고졸 (만 38세)	자영업	X	부모면담 1회, 등·하원 시 비형식적 의사소통 주 1-2회
정우 아버지	어린이집(가정) 유치원(사립)	만 5세(남)	석사 (만 37세)	회사원	O	부모면담 6회 참석 / 부모 참여 프로그램 참석/ 비대면 소통 (앱, 홈페이지) 경험 有
호재, 우재 아버지	어린이집 (가정, 국공립) 유치원(공립)	만 7세(남) 만 3세(남)	고졸 (만 39세)	영업직	O	부모면담 10회 이상 / 부모 참여 프로그램 참석/ 등·하원 시 비형식적 의사소통 주 5회 / 비대면 소통(앱) 경험 有

1) 가희 아버지

가희는 현재 만 5세 여아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가희 아버지는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가희의 주 양육자로서 등·하원 및 영유아교육기관과 이루어지는 상담을 모두 도맡아 한다. 가희가 어릴 때 어머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하여, 이후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다. 가희가 가정어린이집, 영어유치원, 사립유치원 등 여러 기관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희 아버지는 다양한 기관의 교사들과의 소통 경험이 있다.

2) 라엘 아버지

라엘이는 현재 만 4세 여아로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라엘 아버지는 일반적인 회사원으로 평일엔 주로 직장에 출근하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병행이 가능해져, 주 1회 정도는 직접 하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 특성상 원장이 하원을 도맡아 하고 있어, 담임교사와의 소통 경험은 많지 않다. 부모 참여 수업 및 비대면 앱으로 소통한 경험이 있으며, 라엘이가 이사로 인해 기관을 여러 번 옮기게 되어 다양한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다.

3) 리아, 재아 아버지

현재 리아는 만 5세 여아, 재아는 만 4세 남아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리아, 재아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출·퇴근 시 가끔 자녀와 등·하원을 함께한다. 등·하원이 아버지의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로 당직 교사 또는 연장반 교사에게 인계를 해주고, 담임교사와는 주로 비대면 앱으로만 소통한다. 리아, 재아의 어머니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부모로서의 입장이 앞설 때 교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 민준 아버지

민준이는 현재 만 2세 남아로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민준 아버지는 자영업자라 시간활용이 유동적인 편이다. 어머니가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아버지가 민준이의 등·하원 및 방과 후 활동 지원을 도맡아 하고 있다. 부모 면담 시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고 싶지만, 기관에서의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 부모 상담 또는 열린 어린이집 등의 행사에 참여한 적은 없다.

5) 소울 아버지

소울이는 현재 만 4세 여아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소울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소울 아버지는 자유롭게 육아시간을 사용하여 등·하원을 도맡아 하며 기관에서의 부모참여 프로그램들에 참석하기도 한다. 아이의 발달과 관련된 부분을 교사와 자주 소통하고 논의하며 협력한다.

6) 세아, 채아 아버지

현재 세아는 만 4세 여아이며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채아는 만 2세 여아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세아, 채아 아버지는 교사로서 유아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있다. 세아와 채아의 어머니가 근무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아 주로 등·하원은 아버지가 도맡아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주 양육자로서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 이 외에도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과 소통을 자주 하며 열린 어린이집 부모참여 프로그램이나 견학 차량 도움 등 영유아교육기관에서 필요할 때 시간을 내어 참석한 경험이 많다.

7) 예준, 예지 아버지

예준이는 현재 만 3세 남아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예지는 만 1세 여아로 어머니가 가정 보육을 하고 있다. 예준, 예지 아버지는 일반적인 회사원으로 평일에는 바쁘지만,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예준, 예지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자녀의 발달 및 훈육에 대해 고민하며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주는 관찰 수첩 및 스마트 알림장을 항상 꼼꼼히 확인한다. 입소 상담 시에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왔으나, 아이들의 기관 입소 후 시간이 애매하고 기관의 상담 장소가 협소하여 부모 상담에는 참석한 적이 없다.

8) 은유, 은찬 아버지

은유는 만 6세 여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은찬이는 만 4세 남아로 은유가 졸업한 기관인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은유, 은찬 아버지는 자영업자로 집과 영유아교육기관, 직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첫째를 양육할 당시 하원을 때

일 담당하며 기관의 교사와 간단한 의사소통을 자주 하였고, 부모 면담에 5회 이상 참여하였다. 현재는 은유의 초등학교 하원 시 학원 이동을 해주기 위해, 주 1~2회만 은찬이의 하원을 해 주고 있다. 가정에서는 매일 1시간 이상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자녀들과 외부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9) 정우 아버지

정우는 현재 만 5세 남아로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정우네 가정은 맞벌이 부부로 평일에는 정우의 할머니가 정우네 집으로 방문하여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정우 아버지는 부모면담 및 기관에서 부모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모든 활동 및 행사에 연차를 사용하여 적극 참여한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알림장 또는 홈페이지에 항상 댓글을 달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10) 호재, 우재 아버지

현재 호재는 만 7세 남아로 초등학교 2학년이며, 우재는 만 3세 남아로 공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호재, 우재 아버지는 영업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시간활용이 어머니보다 유동적이다. 호재가 어릴 때는 주 양육자로 아이의 등·하원 및 일과를 모두 책임지다가, 현재는 일과 병행하며 어머니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 호재, 우재 아버지는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등·하원 시 짧은 소통을 자주 한다.

2.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이 있는 아버지 2인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예비연구를 시행하였다. 예비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현재 영유아 자녀를 영유아교육기관에 보내고 있으며 연구자와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예비연구 시에도 본 연구와 같이 면담을 시행하기 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 및 전사로 기록된다는 것을 알리고, 면담의 전반적인 진행 방법 및 질문 내용,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면담에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연구는 1차 면담과 2차 면담으로 진행되었는데, 아버지의 대답이 예상보다 짧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1차 면담과 2차 면담의 질문을 따로 나누지 않고, 1차 면담 시 라포를 형성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반적으로 질문한 뒤 이후 전사하며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더 깊게 듣고 싶은 내용과 새롭게 생긴 궁금증들은 2차 면담 시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면담 시간은 1시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아버지들은 1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예비연구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전 고지 시 40~60분의 소요 시간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본 연구

(1) 심층 면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이 있는 아버지 10인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1:1 개별 면담으로 2~3회기를 진행하여 총 23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아버지들과의 면담 약속을 정한 뒤에는 온라인으로 연구설명문과 동의서를 먼저 전달하여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뒤 연구 참여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직접 만난 첫 면담 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라포를 형성하며 설명문을 서면으로 한 번 더 제공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동의서는 직접 만나 서명을 받았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고, 연구설명문을 사전에 전달하여 연구참여자가 면담의 주제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차 면담 시 사전에 알게 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을 시작하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몇몇 아버지들은 연구설명문을 읽고, 질문목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필요로 하는 아버지들에게는 질문목록을 미리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고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을 때 연구 참여자인 아버지가 개별 면담을 부담스러워할 경우 어머니도 함께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기 때문에 (배지희 외, 2016), 본 연구에 참여한 몇몇 아버지들은 가정에 방문하여 어머니와 함께 면담하기를 원하여 연구자가 가정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만, 어머니와의 면담 시 어머니들이 대신 대답하거나 아버지들의 의견을 정정하며 아버지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2차 면담은

아버지에게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은 뒤 전화상담 방식으로 아버지들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고자 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들은 전화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1차 면담 시 “이 얘기까지는 하기가 좀 그래서”라고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거나, “뭐 좋게 표현하면요.”라며 언어적으로 순화해서 이야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느낄 때 연구자는 2차 면담에서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라고 한번 더 질문하였고, ‘부담 없이’, ‘있는 그대로’, ‘편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며 아버지들의 생각과 경험이 심층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소요 시간은 1회당 60분을 기본으로 설정하였으나, 예비연구결과에 따라 아버지들의 상황에 맞추어 최소 30분~최대 1시간 30분 정도로 유연하게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에서 사용한 주요 질문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질문 목록

질문 범주	질문 내용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성별, 연령 및 다니는 기관의 특성 • 자녀를 통해 전해들은 담임교사에 대한 이야기 • 자녀의 기관에 방문해 본 경험 • 자녀의 기관에 참여했던 행사 • 기관에 방문했을 때의 느낌 및 생각
영유아 교사와의 의사소통 관련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한 방법(전화상담, 부모면담, 비대면 상담, 스마트 알림장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경험) • 자녀의 담임교사와의 소통 시 주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 및 주제 •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원장, 원감 또는 보조교사 등)와의 의사소통 경험 • 자녀의 연령, 성별, 기관 특성에 따른 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 • 영유아교사와 좋았던 의사소통 경험 •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자녀관계,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기관과의 관계 등)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생각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선호하는 방법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불편했던 경험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유아교사 및 영유아교육기관에 바라는 점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직장 및 기업에 바라는 점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부 또는 사회에 바라는 점

(2) 면담 노트 작성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진행할 때는 모든 내용을 녹음하여 기록하는 것과 더불어 면담 노트를 작성하였다. 면담 노트에는 개별 면담 시 이루어지는 비언어적인 대화에 대한 기록이나 생각나는 질문, 생각들을 간단하게 적어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질문하거나 다음 면담 시 질문 목록에 추가·보완하는데 활용하였다. 면담 중 연구자가 기록하는 모습은 연구 참여자가 존중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지게 한다(김영천, 2016). 또한 면담 노트 작성하는 것은 면담 시 연구 참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어두었다가 면담 후에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면담 시 작성하는 면담 노트 이외에도 연구 기간 연구자가 느끼는 것들과 떠오르는 질문,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여 반성적 사고를 통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깨닫고 연구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 녹음자료, 전사본, 연구자의 면담 노트, 2차 면담 질문목록, 이외의 추가적인 질문 및 대화를 통한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은 24시간 내로 전사하여 면담 시 현장에서의 분위기와 언어적 표현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여 기록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를 파악하고, 문단과 문장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에 표시하고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여 함께 기록하였다. 자료 분석 시에는 분석적 메모(analytic memo)를 함께 작성하며 분석 과정에서 무엇을, 왜 분석하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파악하면서, 어떤 생각을 통해 패턴, 범주, 하위 범주, 주제, 개념이 생성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방식(Merriam, 2009; 김영천, 2016에서 재인용)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면담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들의 성향에 따라 개인적인 생각과 주관이 달라, 1차 코딩에서는 Saldaña(2009)가 제시한 주제화 코딩 방식을 사용하여 사례들에 주제문의 형태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주제화 코딩(themeing the data)은 단어나 구가 아닌 자료 속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주제를 문장 형태의 코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Saldaña, 2009), 코드 분석 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용이한 연구 방법이다(김영천, 2016). 2차 코딩 과정에서는 주제화된 코딩자료들과 면담 사례를 자세하게 반복하여 다시 읽으며 공통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목록화하여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이후 3차 코딩 과정에서는 1, 2차 코딩자료를 기초로 하여 주제 분석을 통해 공통되는 범주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체계화, 조직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제와 최종 범주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최종 범주

연구문제	주제	하위범주
경험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아버지들의 이해와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자녀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사와의 협력 •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한 교사와의 의사소통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긍정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역할이해 및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 • 부부간의 유대감 강화와 양육 파트너십 증진 • 교사와의 신뢰 형성 및 부모참여 활성화
어려움	아버지를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1순위, 아빠는 2순위 • 아버지의 의도에 대한 오해
	교사와의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 대화하기 어려운 교사들의 상황 • 바쁜 생활로 자녀에 대해 잘 모르는 아버지
	소통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장 위주의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 • 갈등 속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중재와 침묵
요구	영유아교사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적 소통 • 일관성과 친근함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 소통 • 비대면으로 누리는 소통의 자유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가 배제되지 않는 소통 • 영유아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사와의 소통
	사회적 측면에서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 • 가족 친화적인 제도적 발판 마련 •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최종 보고서는 연구 참여자 중 아버지 1인에게 공유하여 구성원 검토를 진행하여 해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전문가 1인 및 유아교육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동료에게 의견을 구하는 검증 방법을 통해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김영천, 2016).

Ⅲ. 연구결과

1.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

1)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아버지들의 이해와 교류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각자의 일상을 조율하며 자녀의 교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 생활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교사와 협력을 통해 자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다. 또한 아버지들은 바쁜 일상에서도 영유아교사와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 중 절반 이상의 경우에는 부모면담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다. 아버지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영유아교사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처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교사와 소통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부모면담 시 교사의 체계적인 준비로 인하여 궁금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걱정한 것과 달리 문제없이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다 적어 갔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저도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핸드폰 메모장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다 적어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걸 물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다 답을 주시더라고요.

(정우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학기 초라 짧은 시간인데도 그 사이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파악하고 ‘이런 성향이고, 이런 게 부족해 보이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아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죠. 선생님한테 신뢰도 가고요.

(은유·은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8.)

아버지들은 학부모로서 첫 상담을 하기 전에는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걱정하였지만, 직접 부모면담에 참여하고 난 뒤에는 체계적인 면담을 통해 다음 상담에 더욱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였다. 또한 은유·은찬 아버지의 면담 사례에서와 같이 1학기임에도 교사가 자녀를 관찰하고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교육 계획을 설명해주는 부분을 통해 교사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부모면담 시간을 통해 평소 묻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직접 질문하며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 생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가 지내는 모습은 교사를 통해 전달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부모면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호재는 다쳐도 자기가 왜 다쳤는지도 잘 말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거의 “모르겠어”, “몰라”, “기억 안 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선생님들께 호재가 혹시 뭐 활동하면서 좀 소극적이지 않은지 여쭙봤어요. 또 우재는 집에서 이런 놀이를 좋아하는데 원에서는 이런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질문했죠.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평소에 못 들었던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죠. 집에서는 밥 먹을 때 1시간이 걸려요. 맨날 한 입 먹고 돌아다니거나 안 먹어요. 저는 ‘아이가 주의가 산만해서 그런 걸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유치원에서는 딱 자기 자리에 앉아서 먹고, ‘다 먹었어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제가 유치원에 가서 물어봐야 ‘애는 밖에서는 안 그러는구나.’ 알고
안심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좋죠.

(정우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가 원에서는 엄청 규칙과 규율을 잘 지키고 정
리 정돈을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정리 정돈하는 걸 계속 교
육하고 있긴 한데, 사실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생활을 잘하고 오히려 친구들한테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이
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길래 좀 웃었어요. 진짜로 집에서 보는 아이
하고 어린이집에서 보는 아이는 너무 달라요.

(민준 아버지, 2024.01.22.)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들은 평소 궁금했던 자녀의 영유아교
육기관 생활이나 걱정했던 습관들에 대해 교사에게 전해 들으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또 다른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미처 몰랐
던 자녀의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자녀의 새로운 모습
에 대해 알게 된 아버지들의 사례이다.

이제 둘째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걱정돼가지고 둘째 담임 선생님하
고 면담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선생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
다고 하면서 집에서 하는 문제행동을 원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근
데 집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아이인데 원에서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은 아이라고 설명해 주셔서 저는 놀랐죠. 왜냐하
면 저는 제가 집에서 보는 모습이 전부니까 원에서 아이가 그렇게 지
내는지 몰랐었어요.

(리아·재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6.)

저희 아이는 유치원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물어보면 그냥 딱 얘기하
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한 걸 상담에 가서 물어봤죠. 근데 유치원
의자가 더럽다고 안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방석도 갖다
주고, 아이가 알려지가 심해서 본인도 조심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선생님도 깨끗한 의자로 좀 바꿔주니까 아이가 앉고 이랬죠.

(정우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리아·재아 아버지는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정에서 보이는 자녀의 걱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오히려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반대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정우 아버지의 사례에서처럼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였다.

특히 아버지들은 가정에서는 알 수 없는 자녀의 또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였다. 영유아교육기관은 자녀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의 측면에서 자녀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자녀들의 사회성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교사와 소통한 경험에 대한 아버지들의 면담 사례이다.

아이가 누구랑 가장 친하게 노는지,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는 다툼이나 분쟁 같은 건 혹시 발생하지 않는지. 당연히 발생할 텐데, 그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했어요. (중략) 아이의 사회성, 친구, 교우관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이제 유아가 되고 나서는 선생님들께서 한 반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를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가 요주의 인물이 되진 않을까, 주의가 필요한 아이가 되진 않을까, 사회성이나 소통하는 협력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그런 게 궁금했죠. 단체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10명이 넘는 아이가 한 반에서 지내는 거니까 교우 관계나 소통 같은 게 훨씬 더 신경 쓰입니다.

(리아·재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6.)

이처럼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래와의 문제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영유아교육기관은 많은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므로 타인과 함께하는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보이지는 않는지 우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진학 전인 만 4-5세 시기에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때 사회성 발달뿐 아니라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역시 자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였다.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이제 ‘소울이가 이제 잘 크고 있다.’ 그런 게 좀 많았는데, 이제 6살 되고서는 또래 관계라든지 한글이랑 수학을 더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또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너무 뒤쳐지지는 않았는지 그런 걱정이 들어서요.

(소울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지금 제가 최고 관심이 많은 건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그게 제일 관심이 많아요. 작년에는 한글 공부에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앞선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들은 자녀가 유아가 되었을 때 전반적인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뒤쳐지거나 사회성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자녀의 교우관계는 가정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마련되는 부모면담은 부모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점을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들은 형식적인 부모면담 시간 이외에도 자녀의 등·하원 시간을 활

용하여 영유아교사와 소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교사와 소통한 아버지들의 사례이다.

하원 하는데 선생님께서 세아가 발달 상태에 맞춰서 잘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이 세아를 잘 따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빠가 많이 놀아주셔서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았죠.

(세아·채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4.12.)

저는 아니면 등·하원 할 때 그때 직접 물어보거든요. 약간 간단한 거는 차라리 그때 그냥 물어보는 게 서로 오해 안 생기는 거 같아요.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위의 사례에서처럼 아버지들은 등·하원 시간을 통해서도 자녀의 영유아 교육기관 생활에 대해 알게 된다고 하였다. 세아·채아 아버지는 하원 시간에 자녀의 기관 생활에 대해 교사에게 전달받고 현재 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소울 아버지는 일상 속 사소한 궁금증이 생겼을 경우에 등·하원 시간과 같이 교사와 마주치는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질문하였다. 부모면담은 궁금한 것을 바로 물어보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는 반면 등·하원 시간을 활용한 소통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 일들이나 자녀의 행동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들으며 영유아교육기관 생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

(2) 자녀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사와의 협력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 교사와 협력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었다. 먼저 아버지들은 부모면담을 통해 교사에게 자녀의 원 생활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녀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전달하는 공유의 시간으로도 생각하고 있었다.

요새 집에서는 어떤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선생님께도 드리는 거죠. 우리 아이가 요새는 이런 거에 관심 있어 하니까 잘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우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위의 사례에서 본 정우 아버지의 경우 평소 바쁜 일정으로 담임교사와 소통이 어려우나, 부모면담과 같이 형식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될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자녀의 정보에 대해 전달한다고 하였다. 특히 1학기 상담의 경우 교사가 자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의 관심사 및 가정에서의 모습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아버지들은 자녀를 등·하원하는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가정에서의 자녀 모습을 교사에게 전달하고,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아버지들이 등·하원 시간에 교사와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사례이다.

저는 등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하원을 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를 꼭 했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원 할 때 선생님이 매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그다음에 오늘은 뭘 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셨어요. 또 제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으면 물어보고요.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아침에 등원할 때는 “아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런 거 얘기하고, 하원 할 때는 오히려 어린이집 쪽에서 저희한테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그다음에 배변 활동이라든지, 낮잠 잘 때 아니면 친구들과하고 뭔가 다툼이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중

략) 그래서 하원 할 때는 그냥 원에서 활동은 주로 제가 듣고 오는 편인 것 같아요.

(민준 아버지, 1차 면담, 2024.01.22.)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들은 짧은 등·하원 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특히 등·하원 시간은 자녀에 대한 일상적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활용되었는데, 주로 등원 시에는 건강 상태 및 기분에 관해 전달하였고, 하원 시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달받았다. 자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영유아교육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들이 등·하원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버지들은 현재 고민하는 양육 문제를 교사와 소통하며 협력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경험은 다음의 사례들에서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지금 잔반 남기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이가 다 먹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라던지 반대로 원에서 뭘 가르치는 게 있다 그러면 “저도 집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죠.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최근에 상담을 요청했었던 케이스는 ‘아이가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보통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알림장에 적어 보내면 연락이 와요. “다음 날 몇 시에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전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화로 상담하고 했죠.

(민준 아버지, 1차 면담, 2024.01.22.)

이처럼 아버지들은 양육 문제에 대해 교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

다. 가희 아버지의 사례에서처럼 가정과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일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녀의 문제에 대한 영유아교사와 아버지의 의사소통은 협력적인 관계를 마련하는 시작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민준 아버지와 같이 영유아 교육 전문가로서 자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데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자녀의 문제에 대해 교사와 매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 소울 아버지의 사례이다.

소울이가 작년까지 약간 불안 증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상태에 대해서요. 그 당시에 아이 엄마가 시험공부도 있고 지방에 출장 가서 며칠 동안 없고 그랬거든요. (중략) 그때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혹시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했어요. 소울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날은 제기 집에 와서 아이를 더 세심하게 보고, 더 놀아주고 그렇게 했었죠. 소울이를 어떻게 다독이면 좋은지 선생님하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극복을 잘했죠.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소울 아버지는 가정에서의 상황을 교사와 공유하면서 소울이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고, 일관되고 안정적인 지도를 통해 문제상황을 함께 극복했다고 하였다. 은유·은찬 아버지 역시 방과 후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은찬이가 좀 소심하고 말이 느려서 고민이 많았는데 원장님이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해서 담임 선생님, 방과 후 선생님까지 세 분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근데 방과 후 선생님이 특히 자기 아들 어렸을 때랑 비슷한 성향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해보시거나,

저희 아들은 이렇게 해봤는데, 한번 해 보시겠어요?”라고 해 주시더라고요요. (중략) 저는 막 속상해서 어떻게 하지 싶은데 선생님은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조금해하지 마세요.”라고 해 주시니까 안심도 되고요. 진짜 부모의 걱정을 캐치하고 여러 선생님이 다 봐주시니까 좋았죠.

(은유·은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5.)

위의 사례에서처럼 은유·은찬 아버지는 담임교사가 아닌 원장과 방과 후 교사와의 소통으로 협력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아버지들과 교사와의 소통이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원장, 원감, 방과 후 교사, 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등 영유아교육기관의 여러 교사들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기관의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태도가 조금씩 다를 것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중 일부는 가정, 민간, 국공립 등 여러 어린이집과 사립, 공립 유치원을 모두 이용해 본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들의 경우 첫째와 둘째가 다니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유형이 달라 다른 유형의 영유아교육기관 교사들과 소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영유아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 또한 조금씩 달랐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된 아버지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선생님보다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더 편하고 그랬어요. 어린이집은 잘 챙겨주시고 하는데 유치원에서는 ‘혼자 해 봐.’라고 하시면서 그냥 서 계시니까 “제가 할게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말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원 준비하는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좀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세아·채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4.12.)

약간에 차이라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좀 엄마 같은? 좀 엄마처럼 보육하는 사람의 느낌이었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정말 교육자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유치원이 더 교육적이었던 건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유아교육 전공이니까 그랬던 거 같은데. 근데 또 좀 유치원 선생님들은 딱딱하다고 해야 하나? 좀 후다닥?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가고 그러셨던 거 같아요. 반면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좀 더 친절했던 거 같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 아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 느낌?

(은유·은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8.)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공통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교사로 느껴지는 반면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이처럼 영유아교사와 함께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들은 전문적인 교육자와 같은 유치원 교사와의 소통과 친절하고 편안한 어린이집 교사와의 소통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3)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한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들은 직장 업무로 인해 영유아교육기관에 자주 방문하기 어려워 교사들을 대면할 기회가 적지만, 비대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소통방식으로는 쉽게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홈페이지, 스마트알림장, 관찰 수첩, 전화 등의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여 교사와 소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들은 스마트알림장을 활용한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스마트알림장은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하여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이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진과 동

영상 및 문서 등의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아버지들은 스마트알림장의 기능 중 자녀의 사진을 보는 것을 시작으로 교사와의 소통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노트(스마트알림장)를 처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는 선생님이 매일 사진을 업데이트해 주셔서였어요. 근데 사진을 또 굉장히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러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진만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다.’ 이런 매듭 있는 글, 짜임새 있는 글을 써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저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댓글을 달게 되면서 이제 ◇◇노트(스마트알림장)로 소통을 시작했죠.

(리아·재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6.)

아무래도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사진이랑 영상 있는 게 좀 더 집중이 되죠. 사진을 보게 되고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걸 했구나.’ 하면서 더 집중력 있게 보게 되고.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거는 뭐죠?” 이렇게 댓글 달기도 하고.

(소울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사진을 제일 선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모습이니까요. 원안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못 보는데 그걸 사진으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은유·은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5.)

리아·재아 아버지는 처음에는 사진을 보기 위하여 스마트 알림장을 사용하였으나 자녀의 활동 내용과 함께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글에 댓글을 쓰기 시작하며 교사와 소통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소울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이 올라왔을 때 집중적으로 글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

졌을 때 쉽게 댓글을 달아 교사에게 질문하기도 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직접 댓글을 달지 않더라도 직접 볼 수 없는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 생활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을 스마트알림장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아버지들은 사진을 올려주시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나 아이들의 수업 및 활동에 지장이 가지는 않을까에 대한 걱정 또한 드러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은 뭘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사진 몇 개만 올려주셔도 애들이 했던 말을 글로 적어주시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사진은 여러 명을 그 만큼씩 찍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세아·채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8.29.)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뺏기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도 되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사진은 좋은데 이렇게 찍어주시면 또 애들 볼 시간에 사진 너무 많이 찍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은유·은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5)

사진을 너무 많이 올려주시는 건 또 선생님이 시간을 소비해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결국 선생님이 힘들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진을 많이 요구하는 건 너무 욕심이죠.

(라엘 아버지, 1차 면담, 2024.09.22.)

이처럼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들이 사진을 많이 올려주는 것이 자신에게는 좋지만, 교사들에게는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스마트 알림장에 올라오는 교사들의 글을 통해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소울이가 그때 그 당시에는 말을 못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선생님이 소울이가 어떤 감정을 보였다라는 걸 설명해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었죠. (중략) 아무래도 전혀 연락 안 하는 거랑 글자로라도, 문자로라도 그래도 인사라도 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하는 거랑은 큰 차이죠.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저는 대면 만남보다도 ◇◇노트(스마트알림장)에 사진과 글들을 얼마나 자주 올려 주시는지가 중요했어요. 아이들의 활동을 자주 올려주는 선생님한테는 대면을 해서도 한마디 더 하게 돼요. (중략) 안 봤어도 본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선생님이어도 저는 처음 봤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이 마음이 가까이 있다고 느꼈었어요.

(리아·재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6.)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아버지들은 대면이 아닌 비대면 소통도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소울 아버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가 언어전달이 되지 않는 영아일 경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리아·재아 아버지는 스마트알림장을 통해 교사와 소통하는 것 역시 영유아교사와의 라포형성에 도움이 되며 직접 대면 시에도 긍정적 효과가 연결된다고 하였다.

한편 일부 아버지들은 평소 교사와 자주 소통하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한 소통 역시 잘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버지들은 댓글 기능도 잘 사용하지 않으며, 가끔 아내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공감 표현기능 이모티콘만 최소한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어색한 건 아닌데, 문자로 소통하는 건 다른 친구들한테도 거의 잘 안 하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댓글도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 좀 성격인 것 같은 게, 제가 보면 어떤 아빠는 매일 답글을

다세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세아·채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4.12.)

‘좋아요.’만 누르죠. 그냥 뭐 이모티콘 정도? 저는 와이프가 누르라고 하면 누르죠. 저는 SNS도 안 하니까. 그냥 별로 감흥이 없으니까.

(라엘 아버지, 1차 면담, 2024.09.22.)

그거 너무 또 ‘감사합니다.’ 하면 또 이거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의미 없는 배려가 이어지니까. 답변을 하면 또 선생님이 답변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안 해요.

(소을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앞선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들은 모두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알림장의 소통 및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저마다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댓글을 쓰는 것 역시 교사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며 의미 없는 배려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아버지들은 관찰수첩을 통해 소통한 경험도 있다고 하였다. 관찰 수첩은 스마트 알림장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정과 영유아교육기관이 영유아의 기분 및 건강상태,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소통방식이다. 다음은 관찰수첩을 사용하여 교사와 소통한 민준 아버지의 사례이다.

번갈아 가면서 쓰죠. 중요한 일정 같은 건 미리 써놓고, 아픈 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써 줘야 하고요. 약 먹이는 거나 ‘컨디션이 어떨다.’ 이런 걸 써서 보내는 거죠. (중략) 실시간으로 안 되는 건 답답하긴 한데 장단점은 있어요. 대신에 자세히 써주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위의 사례에서처럼 민준 아버지는 관찰수첩을 사용한 소통방식은 스마트 알림장과 달리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지면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일방적 소통방식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관찰 수첩과 같이 매일 특이사항을 체크하고 일상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민준 아버지는 관찰 수첩을 활용한 의사소통도 쌍방의 대화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도 쌍방의 대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아침에 등원할 때 써줬던 내용들을 어린이집에서 읽어보시고, 그날 어땠는지 피드백 같은 것도 주시고 하니까.

(민준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4.)

이외에도 아버지들은 교사와 급하게 연락이 필요한 경우 전화를 활용하여 소통한다고 하였다.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전화는 하죠. 그리고 아이 엄마가 안 받으면 저한테 하고요. 왜냐하면 엄마는 3교대가 많으니까 저한테 전화하라고 했죠. 우리 애가 좀 알려지가 있어서요.

(정우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다쳤을 때 전화한 적 많이 있죠.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어린이집 선생님도 몰랐던 상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보통 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아이 엄마는 크던 작던 왜 그랬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그냥 물어봐요.

(민준 아버지, 1차 면담, 2024.01.22.)

앞의 사례들에서 보여지듯이 아버지들은 자녀가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자녀가 다치게 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를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전달받지 못한 자녀의 상처를 발견하였을 때 다친 이유를 물어

보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아버지들은 본인이 신경 쓰이지 않더라도 아내가 궁금해할 것을 염려하여 등 전화를 이용해 확인하고 있었다.

2)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아버지들의 긍정적 변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으로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교사를 통해 자녀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자녀와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교사와 나눈 이야기들을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공유하면서 부부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양육 파트너십이 증진되었다. 그리고 교사와 자주 소통하게 되면서 교사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영유아교육기관과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 역할이해 및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부모로서 어머니와 함께 자녀의 양육자이기 때문에 영유아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해내며 성장해나가는 계기로 삼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애를 키우는 게 도움이 되는지 선생님께서 아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랑 아빠가 해 줄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 걸 가이드 받을 수 있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라엘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어쨌든 아버지도 아이의 양육자니까 아이가 어떻게 지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사하고 얘기한다는 거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니까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울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위의 사례에서처럼 아버지들은 주 양육자든 부 양육자든 상관없이 아버지 역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공동양육자이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라엘 아버지는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얻고 자녀에게 어머니와는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아이를 통해 알 수 없는 것들을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아이한테 물어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애가 얘기 안 하면 저희는 알 수 없는데, 선생님이 “오늘 이런 일 있었어요.” 하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고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저도 아이가 좀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도 어떻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게 좋은 부분인 거 같아요.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저도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도 그런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중략) 왜냐하면 많이 좋아진 것 같거든요. 확실히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다고는 생각해요.

(은유·은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5.)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자녀의 발달에 필요한 부분을 알고 적용하며 지원해 줄 수 있게 되

었다. 아버지들은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자녀들이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어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알게 된 자녀의 교우관계, 관심사, 즐겨하는 놀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자녀와 대화에서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은유·은찬 아버지의 사례이다.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으니까 “오늘 블록놀이 할 때 뭐 했어? 승현이랑 놀이한 거 재미있었어?” 이러면 신나서 얘기해 줘요. 그럼 이제 아이와 아빠 간에 긍정적인 게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런 것도 알고 있네? 어린이집에서 뭐 하고 놀았는지도 알고 있네?’ 라고 인식하게 되니까요. 또 우리 아이가 요즘 뭘 관심 있어 하는지, 뭘 잘 먹는지 선생님께 들어서 아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효과도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은유·은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5)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와 직접 나눈 대화가 아니더라도 아버지들은 스마트 알람장이나 관찰 수첩과 같은 도구를 활용한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도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이들은 “오늘 뭐 했어? 놀이터 가서 놀았어?”라고 물어보면 이해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사진 보면서 이거 “재아 사진이네. 재아 오늘 딱지 쳤어? 몇 개 만들었어? 잘 쳤어?” 라고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나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런 소통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그렇죠. 사진을 보면서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더 많이 물어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뭐 먹었는지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아니면 어떤 활동에 대해서 “재미있었어?” 이

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라엘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이렇듯 아버지들은 교사가 전달해 주는 사진과 글을 통해서 자녀에게 평소보다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저녁 시간에 자녀들과 하루 일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 뭐 했어?’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은 기억을 잘하지 못하거나 ‘몰라.’, ‘기억 안 나.’라고 대답하여 대화가 지속되지 않는 어려움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영유아교사와의 다양한 소통이 자녀들과의 대화에 물꼬를 터주는 거름이 되어주었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아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간접적으로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소울 아버지의 사례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아빠가 선생님이랑 소통을 잘하는 걸 보면 아이도 그걸 알거든요. 선생님하고 아빠가 친한걸요. 그리고 또 우리 아빠가 자기가 힘든 걸 선생님께 다시 얘기해 주면 “아빠 최고!”라는 말도 해요. 자기가 못하는 걸 제가 얘기해 주면서 ‘아빠가 나의 보호자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관계가 돈독해지죠.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이처럼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빠의 모습과 역할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자녀에게 직접 전해 들을 수 없었던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교사에게 전해 듣고 자녀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양육 참여 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고 하였

다. 그와 관련된 사례는 호재·우재 아버지의 면담에서 잘 드러난다.

이를테면 아이가 “아빠가 어제 이렇게 해줘서 재미있었어요.”라는 이야기를 선생님께 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어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좋았었구나.’에 대한 정보가 생기니까요. 아이한테 그걸 다시 한번 더 물어봤었죠. “아빠가 이런 거 해 줄 때 좋았어?”이렇게.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녀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대화의 한계를 극복하기도 하였다.

저는 요새 따라 감정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누구랑 베프가 됐대요. “그럼 어제 베프였던 그 친구는?”이라고 물으면 그 친구는 이제 절교하기로 했대요. 하루 만에. “왜 무슨 일이 있었어?”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같이 안 좋아해 준대.” 너무 따라가기 어려워요. 제가 고장 나는 느낌이 들어요. 많은 학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그러면 선생님께 ‘가희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요~’ 하면서 ‘요즘은 누구랑 친하게 지내나요?’, ‘친구들하고의 교우 관계는 어떤가요?’ 이런 걸 물어보죠. 하루 단위로 다르니까.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이상의 사례들에서 본 것과 같이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번 더 이해하게 되면서, 자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고 양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일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자녀와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던 반면 교사가 전해주는 이야기와 사진, 자녀의 교우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 자녀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부부간의 유대감 강화와 양육 파트너십 증진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부부간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소통 이후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해 더 자주 소통하고, 생각과 가치관을 맞추어나가며 관계를 다지게 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리아·재아 아버지의 사례이다.

선생님이 재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신 이후로 아이 엄마랑 되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었죠.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리아·재아 아버지는 교사와의 소통 이전에는 몰랐던 자녀의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이어질 면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호재·우재 아버지는 평소에도 부부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누지만,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고 하였다.

네, 저희는 둘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거의 아이들 위주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생각에 접점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너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해.’ 하고 대화를 더 하게 되고, 부모 역할도 공통으로 분배하는 면이 많아요.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이처럼 아버지들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 어머니와 함께 소통하며 양육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교사와의 소통으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확인하며 공동양육자로서 역할을 분배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은유·은찬 아버지는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할 때도 있지만 따로 하게 되는 경우 서로가 들은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서 부부간의 유대감이 강화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은유·은찬 아버지가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이 많죠.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아이에 대해 걱정하는 것들을 ‘원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신다더라.’하고 또 얘기하게 되고요. 처음에 제가 엄청나게 고민했던 것들도 아이 엄마가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을 저한테 전해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고, 저는 제가 들었던 걸 아이 엄마한테 전달해주면서 저희한테 긍정적인 게 자꾸 쌓이는 거죠. ‘뭐 했다더라. 오늘은 뭘 잘했다더라.’하는 것들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아이 잘했다는 것부터 쌓이기 시작하니깐 부부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은유·은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5)

또한 은유·은찬 아버지는 영유아교사와의 소통 시 교사가 전달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들이 서로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부간의 유대감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 역시 교사를 통해 격려를 얻게 되고, 그러한 내용을 서로에게 전달하며 고민을 덜 수 있게 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 소통하며 알게 된 것들을 아내와 공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각의 접점을 찾아가며 함께하는 양육파트너로서의 가치를 느끼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영유아교사들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자주 제공하기 때문에 등·하원 시 각자 전해 듣게 되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부부간의 관계에도 함께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교사와의 신뢰 형성 및 부모참여 활성화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은 교사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평소에 영유아교사와 소통을 통해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면 혹시 모를 갈등 상황 발생 시에도 좋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이제 어린이집에서 심하게 다치거나 하면 엄마가 안 하고 아빠가 전화하거든요? 그럴 때 좀 미리 아빠랑 그런 관계가 있으면, 너무 심하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게 없으면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요. 아예 안 본 사이니까. 근데 그래서 아빠랑 평소에 소통을 시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아·채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4.12.)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평소 아버지와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이 자주 이루어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버지들은 이러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었을 경우 교사 역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도 어쨌든 부모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엄마만 보면 모를 수 있는 것들도 아빠를 보면서 ‘아, 애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어쨌든 이 아이를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선생님도 ‘이 아이 아빠는 이렇구나.’ 이런 거 알아야 하니까요. 늘

엄마만 가고 바쁘게 후다닥 하는 게 아니고 ‘저 집은 아빠가 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네? 와서 인사도 자주 하고, 행사 때 참여도 하네?’ 그러면 결국에는 원장님이건 원감선생님이건 담임선생님이건 아빠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은유·은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5)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의 신뢰관계 구축은 아버지뿐 아니라 교사들이 영유아들과 그 가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러운 교사와 아버지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라포가 형성되면서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참여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등원을 제가 하고 선생님들도 제가 익숙하니까 많이 물어봐 주셔서 더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소울이 친구들도 저를 많이 친하게 대하다 보니까 행사에 도우미로 참여하는 것들은 부담이 확실히 덜하죠.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가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애들 견학 같은 거 갈 때 좀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참여라든지 그럴 때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가끔 가서 졸업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찍어달라고 하셔서 가기도 하고요.

(세아·채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4.12.)

요즘은 거의 가면 그냥 “오실 거죠? 오시는 거죠?” 이러세요. 하하하. 이번에도 체육대회 하는데 “아버님은 은유랑 졸업생 대표로 해서 달리기 시작 때도 나오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저도 “아, 저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었죠!” 이러고요. 하하.

(은유·은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5.)

위의 사례에서처럼 아버지들이 교사와 자주 마주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라포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교사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아버지들에게 부모참여를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자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역시 더 쉽고 편안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2.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겪는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영유아교사와의 소통 시 발생하는 어려운 점들을 토로하였다. 아버지들은 아버지를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 교사와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 소통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버지를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나 교사들이 아버지들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교사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1순위로 생각하거나, 아버지의 의도를 오해하며 불편해하는 점을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엄마가 1순위, 아빠는 2순위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양육자로서 자녀의 양육 및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어머니를 1순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다음은 아버지들이 영유아교육기관

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있어서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주 양육자로 인식되는 점을 지적한 사례이다.

어떻게든 유치원은 무조건 엄마가 1순위에요. 저희가 아무리 아빠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해도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하더라도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해요. 일단은 제가 될 하든 안 하든 1순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그래서 아빠보다는 일단은 엄마가 우선이구나.

(정우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그거는 그냥 1번이 거의 엄마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주 양육자가 누구든 간에 그냥 엄마가 먼저. 상식적으로 엄마한테 먼저 전달하는 것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그냥 비상연락망 1번이 엄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 있는 게 아닌가..

(예준·예지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선생님들이 아빠랑 통화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원에다 모든 전달은 제 번호로 해달라고 해요. ‘아이한테 뭐가 있으면 아빠에게 먼저 전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상담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대부분의 경우는 엄마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엄마한테 먼저 연락하더라고요. (중략) 그리고 저랑 얘기하는 데도 자기도 모르게 어머님이라는 말을 좀 쓰셔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죠.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아버지들이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평소 교사와 자주 소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교사들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들은 교사들이 아버지를 불편하게 생각하

고 있는 것이 느껴져 적극적으로 영유아교사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저 혼자 간다고 하니깐 선생님이 당황하셔서 “어, 아버님 혼자 오신다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혼자 가면 안 되나요.’ 했더니 ‘아니에요...’라고는 하시는데 약간 당황해하시더라고요. (중략) 저보다 선생님이 더 부담스러워해서 ‘내가 남자여서? 아빠 혼자 가는 게 많이 부담스럽나?’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조금 그게 좀 불편했었어요. ‘내가 가면 안 되는 건가.’ 괜히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죠.

(소울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선생님들도 전화는 엄마랑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전화해도, 아빠가 다시 또 엄마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거겠죠? 그래도 저는 같이 관심 있어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중략) 근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정우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이와 같은 영유아교사들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앞선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또한 어머니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의외로 아빠들도 가고 싶어 해요. 아빠들보다는 엄마 위주인 게 좀 아쉬워요. 아빠도 좀 관심이 있는데... 물론 아빠마다 다르겠죠. 어떤 아빠는 왜 아빠한테 연락하냐고 하겠지만 그건 옛날얘기인 거 같고. 요즘 오히려 아빠들이 더 심한 거 같아요. 그리고 딸 있는 아빠들은 더 심한 것 같고요. 저희 유치원에도 딸 아빠들 보면 장난 아니에요.

(정우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그때 어린이집에서 쿠키 만들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 다 가려고 했었는데 한 명밖에 못 간다고 그래서 그냥 엄마를 보냈
죠.

(예준·예지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이처럼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이 모두 어머니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와의 소통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나 특별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이 어렵
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2) 아버지의 의도에 대한 오해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아버지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교사들의
태도가 아버지들의 연락이나 소통은 심각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상
황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사례는 다음
과 같다.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빠의 이미지가, 아빠의 연락은
'아빠가 나설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요. 선생님들도 제가 전화하면 많이 부담스러워하죠. 저한테 연락을 달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굳이 "제가 어머니께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한다
든가.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선생님들도 아빠가 그런 걸 얘기하면 컴플레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저나 아이 엄마는 '그냥 애들 다칠
수 있는 거지.' 싶어서 괜찮거든요. 그리고 만약 다른 아이가 저희 아
이를 때렸을 때도 아빠까지 나서서 얘기한다 그러면 선생님도 더 불편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저까지 얘기 안 하는 거 같아요.

(은유·은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8.)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본인의 소통 시도가 교사들에게는 큰 문제

로 인식되어 본의 아니게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험이 있었다고 토로하였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제가 전화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시지만, 처음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하실 정도로 상황을 좀 크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처음에는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연락도 많이 왔고.

(예준·예지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가희 아버지의 사례에서처럼 꼼꼼하고 세심한 아버지들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도 궁금증이 생겨 영유아교육기관에 전화하였지만, 기관에서는 ‘아버지의 전화 = 큰 일’이라는 전제가 무의식적으로 존재하여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반응은 아버지들이 영유아교사와의 소통 시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교사와의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나 교사의 대화 시도에 답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교사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교사에게 부담 주기 싫은 마음이 있으며, 대화하기 어려운 교사들의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바쁜 생활로 아이에 대해 잘 모르는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였다.

(1)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궁금한 것이 있어도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였다. 교사에게는 부모와의 소통도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통 시도가 교사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느껴지며, 특히 자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자신의 사소한 궁금증이 교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말도 걸기 어려워요.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사회생활이잖아요. 일이고. 저도 고객님들한테 그러거든요. ‘이 샘플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얼어질 뻔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살렸습니다.’가 아니라 “아,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한 기간 내에 다 나갈 겁니다.” 하나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하는 순간 이제 사회생활의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일 거란 말이에요.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영아일 때보다는 피드백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죠. 저는 ‘이게 괜찮은 건가? 안 괜찮은 건가?’ 하고 의문일 때가 있고,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데 궁금하다고 다 물어볼 순 없죠.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또한 아버지들은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늘어나 예전과 같은 피드백을 요청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영아시기에는 다양한 소통으로 자녀의 세세한 발달 및 원 생활 등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었던 반면 유아가 되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에게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이렇게 아이들 등원시킬 때 선생님들이 바쁘실까 봐 궁금해도 못 물어보겠거든요. (중략) 0~2세 때는 안 그랬는데 3세 반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등원해서 막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제가 거기서 선생님 시간을 잡아먹는 건 어렵죠. 사실.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육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교육에까지 피드백을 바라거나 푸시를 한다는 건 좀 가중된 업무를 맡기는 것 같아서요. (중략) 선생님들은 어쨌든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일과대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안 다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까지가 선생님들께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밖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좀 체크 해 주시는 정도.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또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들이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들은 궁금하더라도 물어보기 어렵고, 부모가 알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영유아교사가 먼저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교사들의 교육적인 부분을 자신이 너무 관여한다고 느낄까 봐 묻지 않는다고 하였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사실 그 외에 어린이집 생활이 어땠는지 이런 거는 안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선생님한테 “예준이 오늘 어땠나요?”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관여하는 느낌? (중략) 그리고 따로 안 물어봤던 이유는 사실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준·예지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선생님이 아무 말이 없는데 굳이 제가 먼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얘기했을 텐데 굳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이에요. 저도 상담할 때 혹시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씀이 없으셨기 때

문에 제가 굳이 물어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이 외에도 아버지들은 글로 전해지는 소통 역시 교사들에게 불편감을 초래할 것으로 추측하고 어머니에게 대신 소통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소울 아버지의 사례이다.

소울이 엄마가 등·하원을 맡아서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노트(스마트알림장)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엄마를 통해서, 저도 보긴 보는데, 아이 엄마한테 “이거 올리셨으니까 이거 답장 올려.”라고 말을 해주죠. 저는 말을 해주지만 답장은 어차피 엄마가 하는 게.. 그냥 아무래도 선생님이 아빠를 불편해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중략) 아무래도 엄마가 하다가 갑자기 아빠 튀어나와서 얘기하면 서로 당황스럽잖아요. 한 번도 인사도 안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누구 아빠인데요.” 이러면 ‘왜 어머니가 왜 안 하시고 아빠가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아버지들은 담임교사 뿐 아니라 연장반과 같이 담임선생님과 함께 지내는 일과시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묻고 싶지만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임교사에게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일을 질문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 이외의 것을 질문하는 상황이라고 여겨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고 하였다.

연장반 선생님한테는 사실 좀 얘기하기 어려웠어요. 아이가 연장반에서 소변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실수했어?” 하고 물어보고, 저도 화가 나니까 야단 좀 쳤죠. 그러니까 리아가 “거기는 부끄러운 반이란 말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반 선생님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중략) 이런 걸 담임 선생님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원장님한테는 웬만하면 잘 얘기 안하고요. 원장선

생님이 얘기하는 순간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원장님한테 말하는 건 어디 가서 '사장 나와라.'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리아·재아 아버지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원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원장님과의 소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녀의 담임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상황 발생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리아·재아 아버지는 같은 맥락에서 기록으로 남겨지는 소통 방식 또한 원장님의 시선이 의식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노트(스마트알림장)에 남기는 건 원장님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의식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담임 선생님만 볼 수 있는 글이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같아요. 조금 적나라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도 그러면 더 편하게 남겨주시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됐을 때 폐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마스크에서 보듯이 안 좋은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선생님들도 조금 덜 의식하지 않을까 싶어요.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이처럼 아버지들은 회사 생활에서 자신들의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와 같이 담임교사들에게도 원장님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아버지들은 원장선생님 뿐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한 의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은유 어릴 때는 아빠들도 별로 참석을 안 할 때였거든요. 오전에 하는 행사에 가니까 다 엄마들만 있는 거예요. 저는 구석에서.. 그냥 구석에서 있다 왔죠. 하하. (중략) 그냥 저만 아빠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혹시 저를 무서워하시진 않을까 해서 더 안 했죠.

(은유·은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8.)

왜냐하면 어린이집에는 보는 눈이 많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요. 선생님들이 아버님들하고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난 네 분 선생님들 공통점이 다 그랬어요. 아무래도 엄마한테는 좀 더 친절하고 아이의 상태와 관련된 답한 얘기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누구 아버지랑 저 선생님이 친한 것 같다.’ 하고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웬지..

(소울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2) 대화하기 어려운 교사들의 상황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싶으나 교사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소통이 어렵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교사들의 경력에 따라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초임 교사나 연령이 어린 교사들은 아버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좀 어리시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아빠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 안 하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게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어찌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라엘 아버지, 1차 면담, 2024.09.22.)

그래도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조금 더 편한 것 같이 느껴졌고, 젊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던 건 있어요...

(세아·채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4.12.).

또한 아버지들은 교사들이 아이들과 일과를 보내는 것이 힘들어 지쳐 보이는 상황에서는 소통을 시도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다음과 관련

된 호재·우재 아버지의 면담 사례이다.

아이들이랑 있을 때 많이 불편해 보이셔가지고 그냥 ‘저 선생님은 좀 많이 힘드셨구나. 계속 아이들한테 시달렸구나.’ 이런 느낌? 많이 힘드셨고 지쳐 보였고 이러니까 ‘그냥 저러다가 조만간 다른 데로 옮기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호재·우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28.)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지쳐 보이세요. 항상 가보면 선생님들이 다 지쳐 보이시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는 ‘오늘 우리 아이 어땠어요? 우리 아이가 어제 이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 보였는데 혹시 원에서 어땠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위의 사례에서처럼 호재·우재 아버지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아이들과 보내는 하루 일과가 많은 체력을 소모하게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3) 바쁜 생활로 자녀에 대해 잘 모르는 아버지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해 잘 모르는 자신의 상황이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가정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직장근무로 인하여 영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하는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영유아교사 및 교육기관과의 소통 또한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저는 회사 여건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잖아요. 근데 담임선생님도 9시 출근 6시 퇴근이니까요. 저는 아침 당직 선생님한테 등원을 시키고, 담임선생님이 퇴근한 이후에 연장반 선생님하고 하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마주칠 기회는 많지는 않았습시다. (중략) 그건 언제나 항상 목말라 있는데 현실 여건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저희처럼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시다.

(리아·재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6.)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애하고 아빠하고 같이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8시 반까지 출근한다고 치면 집에서 7시 조금 넘으면 나가야 되고, 퇴근하고 집에 바로 와도 8시는 되니까. 일단 아이랑 같이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소통할 시간은 당연히 없는 거죠. 아빠가 어린이집에 가질 않는데, 어떻게 갑자기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늘 애가 어땠어요?’ 해요. 이러면 당황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민준 아버지, 1차 면담, 2024.01.22.)

제가 그때 당시에 일을 하던 걸 잠깐 멈추고 수입은 적어도 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었어요. 아이 등·하원은 다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를 갖고요. (중략) 그때는 제가 다 했고 지금은 아예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듣는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다르죠. 이제는 어플로 아이가 오늘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 정도에 대한 정보만 있으니까 “아이가 오늘은 이런 말을 하던데요.” 뭐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죠.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마찬가지로 아버지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와의 만남 이전에 아이에 대해서 덜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러한 문제점이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아빠들은 육아를 많이 안 해서 아이들의 생활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긴 해요. 제 친구들도 보면 상담은 거의 대부분 엄마가 하는 거 같더라고요.

(세아·채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4.12.)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대신 핸드폰에 대해서는 전문가면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겠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왔을 때 말을 잘 못하는 경우는 내가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린이집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빠들한테 ‘아이는 뭘 제일 좋아하나요?’ 이런 걸 물어보면 아빠들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애는 진짜 뭘 제일 좋아하지?’

(민준 아버지, 1차 면담, 2024.01.22.)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직장근무로 인하여 여유시간이 없는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하며, 그것이 자녀에 대해 어머니보다 덜 알고 있다는 자신감 저하로 이어져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영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할 시간과 기회 또한 주어지기 힘든 일상에서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소통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럴 때는 답답한 마음이 들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아예 대화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아버지들의 어려움은 자기주장 위주의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과 갈등 속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중재와 침묵에 대한 경험으로 드러났다.

(1) 자기주장 위주의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중 일부 아버지들은 교사들과의 소통을 시도하였지만, 자녀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상담이 이루어질 때 답답함을 느끼며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저는 제 딸 하나니까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담당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거나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 요청했는데도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상담했을 때 굉장히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누구나 다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도 괜찮은 것 같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개인 특성화 별로 상담이 안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가희 아버지의 면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들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 자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상담이 이루어질 때는 세심하고 정확한 관찰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교사가 사전 준비 없이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경우에 신뢰를 잃게 된다고 하였다. 위의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화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거기 원장 선생님이 그 너무 개인적인 선생님의 고집이랄까? “원래 이래요~”라고 하신다거나 “우리가 여기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 이런 스탠스일 때는 굳이 ‘우리 아이가 이런 거를 불편해해요. 이렇게 좀 해 주세요.’하는 의견은 내지 않게 되죠. 얘기해도 어차피 ‘힘드시구나, 못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미리 하게 되요.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그 원장님은 본인이 어린이집에서 오래 일해왔고, 자기의 오랜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준·예지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이처럼 아버지들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하여

소통을 시도하였지만, 영유아 관찰 및 전문지식을 토대로 하는 상담이 아닌 자기주장 위주의 대화가 지속될 경우 소통을 포기한다고 하였다. 특히 자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는 듯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소통을 멈춘다고 하였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예준·예지 아버지의 사례이다.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은 예준이가 진짜 막 활발하고 너무 에너지 넘치는 약간 에너지이저 같은 아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옛날 어린이집은 말 안 듣는 애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해달라. 집에서 사랑으로 안 키워서 그런 거다.’라고 하시고. 뭐가 안 되면 다 사랑이 부족하대. ‘사랑을 많이 줘야지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예준·예지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예준·예지 아버지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오랜 경력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만 하는 모습에서 소통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할 때 역시 소통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게 편견일 수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애는 저런 애야.’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언제부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어린이집을 운영 할 때의 어린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의 옛날 관점을 가지고 아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발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준·예지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이처럼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들과 소통 시 자녀에 대한 관찰 및 사전상

담 준비가 없어 보이는 경우나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보다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대화가 이어질 때 소통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부모에게 원인을 돌리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영유아를 바라보며 소통하는 상황에서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2) 갈등 속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중재와 침묵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아버지는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문제상황으로 인해 영유아교사와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머니와 교사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소울 아버지의 사례이다.

이제 아내가 CCTV를 보자고 해서 상황이 좀 나빠졌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개입했었어요. 아이 엄마는 너무 놀란 마음에 요청한 건데 거기서 원하는 대답이 안 오니까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선생님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서 같이 이렇게.. (중략) 저는 우선 아내를 릴렉스시키고, 원에 다시 전화해서 ‘아이 엄마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하고, 저희도 아이가 처음이다 보니까 놀라서 그런 것 같으니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자기도 되게 전화 끊고 엄청 후회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셔서 제가 중재 아닌 중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소울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남성이 감정적으로 소통하기보다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교육기관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어머니보다 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 사회의 전통적인 사고 관념으로 놓고 본다면 남성들은 ‘멘박스’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문제 해결적 사고 같은 남성화된 사고를 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픽스하기 위해서는 아빠들이 좀 더 커뮤니케이션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왜냐하면 아빠들은 잘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묻고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A를 말해도 엄마들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아빠한테 말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아빠들도 있을 거고.

(세아·채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4.12.)

반면에 아버지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중재자 및 문제해결자의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소통을 멈추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였다. 불편한 마음이 앞설 때 교사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녀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네. 근데 거기 원장 선생님이랑 소통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아이가 다쳤는데 병원에서 이미 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사실 우재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화가 났는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웠어요. 괜히 그런 걸로 컴플레인을 하면 한창 또 뉴스에 나오는 문제들이 떠올랐었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는 언어 발달이 조금 늦어서 감정 표현이나 “여기 아팠어.” 이런 말도 잘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이 정도 이야기만 드렸죠. 최대한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했습니다.

(호재·우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28.)

애가 다치면 선생님이 불편한 것보다 마음이 불편한 거죠. 선생님들과의 트러블은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과 트러블이 있으면 저한테 그게 돌아올까요? 아니죠. 아이한테 가겠죠. 그래서 서로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편이에요.

(민준 아버지, 1차 면담, 2024.01.22.)

이처럼 아버지들은 어머니와 영유아교육기관과의 사이에서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였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소통을 멈추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아버지들의 요구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에게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에서 바라는 점들에 대해 면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아버지들의 요구는 영유아교사에게 바라는 점,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바라는 점으로 구분되었다.

1) 영유아교사에 대한 요구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유아교사들에게 바라는 점들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였다. 그중 아버지들은 신뢰와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소통, 그리고 교사들의 일관성과 친근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소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부 아버지들은 교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자유롭게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적 소통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소통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기본적으로 교사와의 라포가 형성되었을 때 친밀감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편안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선생님과 좀 더 가까워진다면 집에서 아이가 문제가 있어 보일 때 ‘우리 아이가 집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던데 원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너무 친해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면 조금씩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소율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아버지들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소통을 편안하게 할 정도의 라포가 형성되는 것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교사들의 경력이 많거나 양육 경험이 있는 경우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는 선생님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키워본 사람과 안 키워본 사람은 다를 수 있잖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실제로 경험하는 내 감정은 다르니까요.

(소율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근데 결혼한 선생님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랑 교육적인 부분을 같이 얘기해줘서 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중략) 예전에 공부 중인 학생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색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랑 비교해 본다면 좀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편하게 얘기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은유·은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8)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라포 형성보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가 굳이 형성되지 않더라도 자녀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거나 평소 교사가 보여주는 전문적인 모습에서 저절로 신뢰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라포가 잘 형성되려면 다른 거 말고 그냥 아이를 잘 돌봐줘서 신뢰가 쌓이는 게 오히려 더 큰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관심 가져주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면 조금 더 마음이 열릴 수 있겠고, ‘그냥 적당히 봐주는 것 같다.’ 그러면 대화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민준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4.)

등·하원할 때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아이가 선생님이랑 친해 보이면 잘 지낼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도 보이고, 이제 대화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해도 선생님이랑 관계가 잘 형성된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세아·채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4.12.)

특히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지닌 교사와 자녀의 개별 특성에 대해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 알고 있는 교사와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서, 좀 그게 디테일했어요. 집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의 저런 면모가 되게 좋은데 선생님이 그걸 알고 있으신 거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이 왔을 때 ‘우리 아이의 특성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으레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

(호재·우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28.)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다 아이들마다. 이를 테면, 우재는 “장난꾸러기의 기질이 많은 아이인 거 같아요. 원에서 오늘 친구한테 이런 장난을 치던데 혹시 집에서도 그런가요? 집에서는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먼저 걸어주시면 ‘선생님이 이런 모습을 봤고,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구나.’ 이런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혹시 새로운 또 다른 모습이 보였을 때는 선생님이란 소통하기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아버지들은 비대면 소통방식인 스마트알림장이나 관찰 수첩 등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 또한 개별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알려주길 바라고 있었다.

아무래도 힘드시겠지만, 그날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면 저희 아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집에서 하는 행동이랑 어린이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략)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찌다 한 번씩 이라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써주셔도 부모님들은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이처럼 아버지들은 아이들의 개별적인 성향과 문제, 있었던 일 등에 대해 알려준다면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들은 교사들이 업무가 많아 자주 개별적인 피드백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가끔이라도 개별적 피드백이 전달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교사들이 자녀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전달하기보다는 불편할지라도 아이의 개선점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솔직하

게 소통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기관에서 솔직히 말해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항상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아이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빠도 아이들과 어느 정도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아이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행동들이 개선된다면 선생님들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아이가 잘한 것만 있을 수 없거든요. 사실 아이들이라 되려 서툴고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과제들이 많고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해 주시는 얘기들에는 긍정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요. 집에서 보더라도 제가 우려하는 아이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장난을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른다든지 그리고 심하게 편식한다든지 하는 부분요. (중략)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해주셨다면 소통이 가능한 한 더 빨리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교사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좋지만, 항상 잘하는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함께 지원해주고 교육할 수 있도록 자녀의 부족한 부분도 함께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문제행동뿐 아니라 자녀가 다치는 경우에도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다쳤을 때 왜 다쳤는지 물어보긴 하잖아요. 뭐 하다 누구랑 장난치다 다쳤는지요. 근데 물어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다쳤어요.”하고 연락이 오면 다칠 수도 있는 거지 싶죠. 다치는 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정우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정우 아버지의 사례에서처럼 아버지들은 자녀가 다쳤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교사가 솔직하게 전달해주면 관계의 투명성에서 오는 신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이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에서 요구되는 점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라포가 형성된 뒤에 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신뢰하고 자녀에 대한 궁금한 것들도 편하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주는 교사들에게 더욱 신뢰가 느껴져 자녀의 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대로 영유아교사들이 자녀와 잘 지낸다면 굳이 아버지와 라포가 형성되거나 소통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 관계가 밑받침된다면 소통이 필요할 때 쉽게 소통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일관성과 친근함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 소통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의 양육방식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교사와 자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육아를 시작하면서 육아 서적들을 보는데 공통사항 중의 하나는 훈육하는 어른의 스탠스가 일관되게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도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6.)

이러한 일관된 훈육을 위해 교사와 아버지가 같은 관점에서 영유아를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자주 바뀌는 것이 일관된 훈육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제가 느꼈던 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바뀐다. 이 한 애를 오랫동안 보지 못한다고?’ 오히려 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럴 때보다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 기관을 계속 다녀야 되는가’의 고민이 좀 덜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선생님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준이만 해도 지금 2년을 다녔는데 선생님이 4번이 바뀔 정도면..

(예준·예지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어린이집은 좀 선생님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게 있었죠. 이번에 유치원에서도 6살 때 담임선생님이 딱 유치원에 가셨대요. 그런데 “선생님은 다른 데 갔는데..” 하고 바로 알더라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그런 걸 또 바라는 거 같아요.

(정우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아버지들은 자녀의 담임교사가 자주 바뀌는 것이 아이의 적응 문제뿐 아니라 교사와의 소통 단절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담임교사뿐 아니라 한 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는 교사일수록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께서 올해도 연속으로 담임을 해주시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래 보다 보니까 더 편한 건 있죠. (중략) 또 자주 보게 되면 좀 친해지고 편해지니까,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하거나 말할 수가 있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평소에 지나가면서 선생님들 많이 마주치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거 같아요. 담임선생님 되기 전에도 등·하원할 때나 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다 눈인사하고 하다 보면 담임선생님이 되셔도 편한 느낌이 있죠.

(은유·은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8)

이처럼 아버지들은 담임교사가 아니더라도 한 기관에서 교사들이 오래 근무할 때 일상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짧으면 자녀의 담임이 되었을 때도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소통의 빈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중요한 요소는 어쨌든 자주 만나는 거. 그게 제일 크죠. 절대적인 시간. 어쨌든 만남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그냥 무조건 많이 보는 거? 그게 제일이죠. 뭐 자주 만나고 마주치고. 그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요.

(은유·은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8)

관계 맺음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질수록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주 보니까 더 할 얘기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건 그만큼 빈도가 적기 때문에 거리감도 있을 수 있고, 얘기할 거리가 적어지고요. 자주 보고 자주 눈 마주치고 대화하다 보면 선생님과의 관계도 형성되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은유·은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5)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이 특별한 관계가 아닌 사람 대 사람과의 만남이기도 하므로 간단한 일상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은 교사와 나누는 짧은 일상 대화나 스몰토크에 대한 아버지들의 면담 사례이다.

지금 원장님은 스몰토크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은유·은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8)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한 대화 좋아해요. 근데 약간 내성적인 사람이
다 보니까 편하게 응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먼저 해 주
신다면 고맙죠. 너무 고맙죠.

(리아·재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6.)

선생님과 소통하는 데 더 도움이 되죠. 저도 약간 긴장이 풀리게
되고요.

(소울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아버지들은 자신이 부끄러움이 많거나 평소에 스피치토크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도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걸며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한다면 고마움
을 느끼며 마음이 열려 더 편안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
다.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가 아닌 아버지의 개인적 일상에 대해 물을 때에
도 친근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선생님들마다 ‘아버님 요즘 일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 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은 관계가 형성
되는 것 같아요.

(세아·채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8.29.)

“아버님, 소울이한테 들었는데, 요즘 바쁘시다면서요?”하는 그런 말
들 들으면 엄청 좋죠. ‘선생님이 우리 소울이를 신경 쓰고 있구나. 우
리 가정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소울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이는 아버지가 교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일상에 대해 교사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자녀가 교사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아버지들
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는 교사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들이 먼저 교사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담을

주게 되는 불편한 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사가 먼저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하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건네는 것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이 당연히 더 좋겠죠. 아이가 하루를 보내고 나왔을 때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으니까요.

(민준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4.)

저는 더 좋았어요. 친근감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더 이제 말을 더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딱딱딱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저도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되고 할 말만 딱 하게 되죠.

(소율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또한 위의 사례들과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들은 친절한 교사들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전달하는 이야기를 듣고 영유아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거나, 비형식적인 소통 시 친절하게 응대해주며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더 마음이 열리며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아이가 아침에 조금 유치원을 오기 싫어했어요. 어제 많이 놀아서 피곤했나 봐요.” 하고 전달하면 그걸 잘 케어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 더 안아준다든지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어제 많이 놀았구나. 재밌었나 보다.”라고 해 주시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소통이 좋았어요.

(호재·우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28.)

큰애 선생님은 이제 그냥 응대만 해 주시는 스타일이세요. 하원 때도 아이 데리고 나오고 인사시키고 바로 들어가시거든요. 작은 애 담임선생님은 등원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왔네! 너무 예쁘다.”, “오늘은 아빠랑 같이 왔네.” 하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해 주세요. 굉장히 상냥

하고 친절하게. (중략) 저도 감정의 동물인데 선생님한테 막 빛이 나요. 둘째 담임 선생님한테는.

(리아·재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6.)

아버지들은 이러한 교사의 친절함이 대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형성해주어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들 역시 학부모이기 이전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친절함과 상냥함을 느낄 때 더욱 친밀감을 느끼며 교사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대부분 교사와의 소통방식에서 직접 만나 대화하는 면대면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는데, 다음은 그와 관련된 사례들이다.

그래도 직접 가서 선생님 얼굴 뵙고 만나서 얘기하는 건 다르죠. 모르겠어요. 제가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화하고 이런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게 좋아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치는구나.’ 알아야죠.

(정우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직접 만나는 게 더 좋죠. 아무래도 이제 문자클로 쓰는 건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직접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소통을 하고자 하는지 표정으로 알 수가 있는데 글로서는 이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만나는 게 더 서로 오해도 없는 거 같아요. 사실 만나서 얘기하면 제가 원하는 걸 더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글로 쓰는 건 오해 할 수도 있으니까. (중략) 어쨌든 서로가 이제 진짜 소통을 하고 서로 정확한 걸 이해하려는 것은 직접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죠.

(소율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결국에는 글보다는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로는 그렇게 많은 걸 쓸 시간도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직접 대화하면 인사도 제대로 나누고, 5분 정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좋은 관계도 형성되는 거 같고요. 결국에는 ◇◇노트(스마트알림장)로 오는 글은 그 어느 정도의 전체 요약 같은 거니까, 저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것밖에 못 하고 제한적이잖아요.

(은유·은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5.)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직접 만남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알게 되는 점, 비언어적 소통이 병행되어 오해가 줄어들어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온전하게 전해지는 점, 짧은 시간에도 많은 정보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소통이 자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잦은 만남은 라포가 형성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대화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일관된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관에서 교사가 오래 근무하여 신뢰와 라포가 쌓이는 점과 담임교사가 바뀌지 않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3) 비대면으로 누리는 소통의 자유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중 일부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을 어렵게 느끼고 있었으며, 앞서 제시한 아버지들의 요구와는 달리 비대면으로 소통하거나 소통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대면방식보다 비대면 방식이 더 쉽다고 이야기한 세아·채아 아버지의 사례이다.

제가 친구들 봐도 그냥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이러는 거는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생님 만나서는 ‘선생님 얼른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마는데 핸드폰으로는 더 말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몇 시에 데리러 갑니다.’ 이렇게 이거밖에 없긴 하지만 문자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중략) 첫째 아이 유치원에서도 홈페이지에 사진 올라오면 아빠들이 댓글 달고 이러시더라고요. 아빠들은 아마 그런 걸 더 편해하는 것 같아요.

(세아·채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8.29.)

이 외에도 다른 아버지들은 어머니 대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등·하원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양육에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교사와의 소통은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말을 걸어주지 않는 교사가 더 좋다고 하기도 하였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 엄마가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내용들을 공유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불만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소통하지 않는 게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쁘지 않다? 굳이 아는 척 안 해줘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에요. 약간 옷 가게 직원이 말 안 걸어주면 좋은 것처럼요. 얘기하기 좋아하는 남자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라엘 아버지, 1차 면담, 2024.09.22.)

라엘 아버지의 사례와 같이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향을 지닌 아버지들은 오히려 교사와 직접 소통하기보다는 어머니를 통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역지로 교사와 소통할 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버지들의 성향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자녀의 양육에 관심을 가지는 아버지들과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되, 교사와의 대화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아버지들과는 알림장을 활용한 일방적인 소통이나 일상에서 주고받는 눈인사와 같은 따듯함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요구를 드러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배제되지 않는 소통과 담임교사만이 아닌 영유아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사와의 소통을 바라고 있었다.

(1) 아버지가 배제되지 않는 소통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모두 영유아교육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아버지들이 배제되는 상황을 짚어서 함께하는 소통에 대해 요구하였다. 우선적으로 아버지들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면담에 아버지들도 포함해 주길 바랐다.

가장 좋은 건 아이 엄마와 아빠가 선생님과 2 대 1 면담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아이 엄마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테고, 아이 엄마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답을 제가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아이 엄마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를 제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중략) 그게 우리 아이에 대해 가장 온전하고 밀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리아·재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6.)

부모 입장에서든 통해서 듣는 거랑 직접 소통하는 거랑 다르니까요. 아빠는 안 가면 전해 듣는데, 사람 말이 한 번 거치게 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직접 안 들으면 선생님의 본심은 a인데 이게 b가 될 수가 있어요. 엄마가 “선생님이 우리 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이러면 아빠는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중략) 그러면서 아이를 잘 키우자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아빠도 같이 상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아무래도 아이 엄마가 듣는 거 외에도 아빠한테 해 줄 수 있는 얘기들이나 부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라엘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들은 두 명의 부모 모두 함께 교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고, 아버지가 상담 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묻고 피드백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어머니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역시 아버지와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아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는 부모면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말하였다.

그거는 한 명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상담 시간이 보통 4시부터 6시 사이에 하는데, 그러면 아이가 하원하는 시간이 짧아요. 만약 둘 다 상담을 가면 아이는 다른 사람이 봐야 되는 거고 누군가한테 요청을 해야 되니까. (중략)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육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들어가면, 애가 우리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당연히 저희한테 오고 싶어 할 거고 정상적인 상담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공간이 없는 어린이집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민준 아버지, 1차 면담, 2024.01.22.)

저희도 유치원에서 상담한다고 하면 시간 되는 사람이 가는데요. 아이들은 누가 돌봐야 하고, 맡기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세아·채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4.12.).

위의 사례에서처럼 아버지들은 부모면담이 아이들의 하원 이후 이루어져서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면 함께 면담에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를 돌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기관 유형에 따라 부모면담이 진행되는 공간이 영유아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원활한 상담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담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에 아버지들은 함께 부모면담에 참석할 수 있도록 면담 요일 또는 시간과 같은 일정에 대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아빠들도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 가야 되면 안 좋아하는 아빠들도 있을 거 같아요. 애한테 관심이 많은 아빠들은 ‘내가 좀 일찍 퇴근해서라도 가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하는 시간에 그 상담 스케줄을 잡아서 휴가 써서 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휴가 썼는데 가서 상담 많이 해야 30분이잖아요. 그럼 30분을 위해서 내 휴가를 쓰기에는 애가 아플 때나 이런 변수가 많으니까
(민준 아버지, 1차 면담, 2024.01.22.)

연차가 있는 아빠들도 그 연차 애들이랑 놀러 가는데 쓰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 주말이나 저녁 시간이 맞는 거 같긴 해요.
(은유·은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8)

사실 이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선생님들과 출퇴근 시간이 겹치니까 반차를 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중략) 주말이 되려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설 수 있는 날인데 선생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주말을 좀 시간을 써서.. 근데 사실 주말에 하는 것도 선생님들은 부담이죠.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이처럼 아버지들은 평일 저녁 또는 주말에 상담이 이루어져야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면담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연차 사용이 가능한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는 아버지들은 참석하기 어려우며 연차 사용이 가능할지라도 연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데에 연차를 활용하고 싶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주말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생각하면 평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였다.

근데 평일에 하는 게 맞죠? 그게 주말에 하면 선생님들도 또 주말에 나와야 되는 거고.

(세아·채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4.12.)

근데 이해는 되거든요. 만약에 되면 7시에 상담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싶다고 하면 선생님들한테는 또 일이 잦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하는 게 근로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해는 돼요.

(예준·예지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이처럼 현실적으로 교사와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동일하다 보니 상담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고, 한편으로는 교사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면담 뿐 아니라 영유아교육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와 영유아교사가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 또한 바라고 있었다.

제가 원장이라면은 선생님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 보려고 노력하면 어떨까?’라고, 권고할 것 같아요. 저도 고객한테 일어나는 문제들을 설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 다 알고 싶어요. 특히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고, 이걸 교육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원장님이 운영하는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요즘에는 대기업은 반차나 연차 잘 준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야 조금 힘드시겠지만 아빠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주말 같은 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야 하는 거 같아요. (중략) 아빠들도 다 궁금한 것도 많고 선생님도 만나고 싶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은유·은찬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8.)

아버지들은 전반적인 이야기에서 영유아교육기관과의 소통과 참여할 기회가 생기길 바라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담 이외에도 아버지가 참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및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바랐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면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를 돌보아 주는 공간과 시스템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2) 영유아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사와의 소통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담임교사 이외의 다양한 교사들과도 소통하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자녀가 늦게 하원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아닌 방과후교사나 연장반교사 등 다른 교사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담당하고 살피는 다른 교사들과의 소통 또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장반 선생님이 좀 낯설었는지, 연장반이나 친구가 낯선 건지 꼭 연장반에서만 소변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거리낌이 있었죠. (중략) 그래서 이렇게 연장반 선생님과도 이렇게 ◇◇노트(스마트 알림장)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원장님이 기관의 교사들에게) “지나가면서라도 이런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부모님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네요.” 하면 그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걸 봐주시고 피드백해 주시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시스템인 거 같아요.

(은유·은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5)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 중 한 아버지는 영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에 대해 연구자에게 질문하며 남자 유아교사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1차, 2차 면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교사와의 소통을 어려워하였던 아버지들과 현재 영유아교사와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추가적인 전화 면담을 통해 남자 교사에 대한 아버지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자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래도 조금 나올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직까지 저희 세대는 동성이 편하니까. 유치원 선생님은 여자들만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라엘 아버지, 3차 면담, 2024.10.20.)

근데 남자 교사가 있어도 얘기 안 하는 아빠들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남자끼리라 더 안 할 거 같기도 해요. 저희 원에 예전에 남자 보조교사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엄마들은 그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오히려 아빠들은 더 어색해했던 거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 하면 활발하고 톤 높고 밝은 성격이잖아요. 근데 여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대답할 거 같은데, 같은 남자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아빠들은 좀 부담스러울 거 같은데요?

(은유·은찬 아버지, 3차 면담, 2024.10.20.)

저는 남자교사가 있다고 해도 별다른 건 없는 거 같아요. 관심이 있는 아빠들은 여자 선생님한테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니까요. 제 친구 중에 육아에 별로 참여 안하는 친구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육아에 관심이 적어서 남자교사도 여자교사랑 똑같고 상담도 안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세아·채아 아버지, 3차 면담, 2024.10.20.)

라엘 아버지의 경우 앞선 사례들에서 여자 교사와의 소통이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하였는데, 남자 교사가 있다면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또 다른 아버지의 경우에는 남자 교사가 영유아들을 대하는 높은 톤이나 밝은 목소리로 소통한다면 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기존에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들은 교사의 성별과 상관없이 소통을 더 잘하게 되진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본 바와 같이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해 아버지가 배제되지 않도록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주고, 담임교사가 아닌 자녀와 마주치는 다양한 교사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마련해주기를 바라였다. 추가적으로 일부 아버지들은 남자 영유아교사가 있다면 소통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3) 사회적 측면에서의 요구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아버지들의 요구는 개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유아교육 시스템구축, 가족 친화적인 제도적 발판 마련,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으로 나타났다.

(1) 개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들이 가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교육, 원장 교육 등의 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제 교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런 학부모와의 소통과 신뢰 관계에 대해서 구축하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조금 잘 갖춰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와 소통하는 부분도 원에 권고하고, 좀 더 나아가서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교사한테 스스로 변화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될 거예요.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또한 아버지들은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의 비율이 너무 많아 개별적인 영유아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이를 떠받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쳤는지 한번 봐주는 거, 친구랑 다툼이 있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선생님 한 분이 10명, 20명?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보라고 한다면 하나도 너무 힘들어요. 4명, 5명 관리해야 애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반찬을 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지 20명 모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정상적으로 아이가 안전하게 일상 생활을 소화하도록 하시는 것만으로도 벅찰 거라고 생각해요.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교사의 인원이 늘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사와 아동의 비율요. 그게 제일 최고죠.

(소울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5.)

이처럼 아버지들은 교사 1인당 맡게 되는 영유아의 비율이 축소되고, 교사들의 수가 늘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영유아교육기관에 바라는 요구와 같은 선상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교사들의 추가 근무비용을 지

원해주어, 아버지들이 퇴근 후 상담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랐다.

저는 요일에 관해서는 다 열려 있어요. 기회와 시간이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인데, 어린이집의 존재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재정을 투입하기도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선생님들의 연장 근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어프로치 하는 게 더 쉬운 솔루션일 거라고 생각해요. (중략) 그런데 선생님들께는 막 요구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건 다 초과 근무니까 정책 자금이 내려와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걸 조금 약간 정책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가 아이와 가정에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비율의 축소, 전문적인 교사의 인원 증가, 학부모와의 소통과 관련된 교사교육 및 연수 마련 등 유아교육시스템을 정비하고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가족 친화적인 제도적 발판 마련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제도적 발판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일단은 육아휴직 자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맞벌이가 힘들어요 저희도 장모님이 힘들게 올라와 계신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육아휴직 할 때 월급을 다 주는 안

말이 안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라에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0.7%가 되는 거잖아요 출생률이. 제 주변에도 물어보면 다 애를 안 낳아요. 하나 낳고 땡 하고.

(정우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출산율이랑 별개로 육아휴직 같은 것도, 엄마 아빠 둘 다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아빠가 육아휴직 쓰는 걸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빠가 육아휴직 쓸 수 있지.’ 이 정도까지는 왔으니까, 점차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겠죠.

(예준·예지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휴가라든지 반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빠들의 참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건설 현장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일하는 친구들은 “내가 육아휴직 어떻게 해.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따라다녀.” 이런 말 여전히 많이 해요.

(세아·채아 아버지, 1차 면담, 2024.04.12.)

이처럼 아버지들도 편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여 양육에 가담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꼭 육아휴직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아프거나 하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가능한 가족친화제도가 마련되고, 그러한 제도를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좀 아이가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지난주에 아이가 아파서 아내가 휴가 쓰고 저랑 같이 아이 돌봤거든요. 저도 일정 있는 건 취소하고요. 제일 당황스러운 내가 밖에 나와 있는데 아이가 열난다고 그러는 거죠. 열나면 집에 데려가야 되니까. 그럼 갑자기 일하다 말고 중간에 들어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민준 아버지, 1차 면담, 2024.01.22.)

최근에 아내가 여행 가서 연락을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큰 애가 아프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 나갈 수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웠죠. 그냥 선생님들한테 ‘챙겨준 약 잘 시간 맞춰서 먹여 주시고 아이가 잘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막 촌각을 다투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요. 항상 그럴 때 이제 담임선생님께 죄송하죠. 미안하고 고맙고. 선생님의 에너지를 우리 아이한테 많이 써야 되니까 되려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리아·재아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3.)

위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아버지들의 요구는 아버지의 육아휴직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아이가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 시간 등 가족 친화적인 제도 마련과 기업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는 사회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제도와 방편이 마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발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분위기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깔린 육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들과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교사는 당연히 학부모하고 접점을 찾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지만 아빠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냥 등·하원만 시켜주는 아빠하고, 저처럼 육아에 전담으로 하는 아빠하고는 다를 거니까요. 아빠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민준 아버지, 2차 면담, 2024.09.24.)

육아 과정에서 아빠는 잘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유치원에서는 행사하면 아빠들이 다 꽃 사 들고 오세요. 되게 진심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난번 어린이집 다닐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 그런 아빠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는 생각도 좀 해요.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이처럼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와 교사와의 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더불어 아버지들은 아빠들의 관심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육아는 어머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으로 바뀌길 바라고 있었다.

사실 엄마랑 해야지 더 소통이 잘된다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빠한테도 엄마한테 질문하듯이 해 준다면 아빠들도 ‘난 그런 거 모르는데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은 안 할 거예요. 그만큼 육아에 대한 참여도가 아빠랑 엄마랑 이제는 거의 균등 해져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 아빠라서 더 해도 되는 질문. 이거는 사실 경계가 없고 동일선상에서 시작돼야 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호재·우재 아버지, 2차 면담, 2024.10.09.)

근데 사실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기 보다는 그냥 바뀌는 게 안 멈췄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엄마한테만 권유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뭔가 엄마아빠가 같이하고, 아빠도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인식은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와준다’라는 거에서 ‘함께한다’로요.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부장적이었으니까 더 그런 인식이 컸던 거겠죠.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선 아이가 좀 더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준·예지 아버지, 1차 면담, 2023.11.03)

아버지들은 함께하는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재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되었을 때는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예준·예지 아버지가 위의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큰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소울 아버지의 사례에서도 같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소울이가 3살 땐 보통 등·하원 시키면 거의 90% 이상 엄마들이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아버님들이 한 30~40%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불과 3년 만에 많이 인식이 바뀌긴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전담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엄마는 뭐 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동네에 어떤 할머니는 아내랑 셋이 가니까 애기 엄마 없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소울 아버지, 1차 면담, 2024.09.03.)

위의 소울 아버지 사례에서와 같이 아버지가 등·하원을 담당하거나 주 양육자로서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서만 아버지가 아이를 케어한다는 주변의 시선이 아버지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었다. 이는 처음 자녀를 낳아 영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관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희 아버지는 양육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인식 때문에 당연하게 어머니들에게만 부여되는 역할을 규정하는 표현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잘못된 단어예요. 마치 뭔가 ‘모성’이라는 단어가 엄마를 너무 짝하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엄마가 희생이 대명사이긴 하지만 그걸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라면 그래야지, 엄마가 먼

저 해야지.’하는 것들이 아빠는 사실 한 걸음 물러나도 되는 거라고 규정하는 거 같아요. 전 딸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제가 제 딸이 크는 사회는 저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육아는 누가 먼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부는 특히 그렇죠.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노력해 주는 거고, 조금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중략)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남성의 사회생활에 대해 타자화된 여성에게 나머지 기타 집요한 문제들을 다 대충 처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엄마가 해야지.’가 되는 거 같고요.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마지막으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사회적인 영유아들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점점 이렇게 되게 되는 사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다 그 생각들이나 사회적 인프라의 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귀한 걸 모르는 거죠. 선생님들의 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건, 엄청 높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유아교사가 굉장히 높은 샐러리를 받는 전문직이었으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역시 굉장히 낙수 효과로 우수한 부모들이 키웠겠죠. 그러면 아이를 키우기가 좀 더 쉬운 환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희 아버지, 1차 면담, 2023.12.13.)

이처럼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육아에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 증대, 양육의 주체가 어머니라는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영유아를 책임지고 있는 영유아교사들에 대한 높은 대우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존의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을 깨고 당연한 것이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한다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역시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들과의 면담을 통해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을 중심으로 아버지들이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과 긍정적인 경험 및 어려움을 살펴보고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아버지들의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1)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와 교류하고 협력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녀의 양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정보를 교사와 함께 공유하면서 협력하게 되었다. 이는 양육 참여를 통하여 아버지들이 지속적인 배움을 실천하며 가치관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였다는 김용익과 김낙홍(2015)의 연구, 그리고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양진희(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 소통하며 이전에는 몰랐던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 생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기관과 교사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는 계기로 인식하였다. 이는 아버지들이 과거와는 달리 양육에서 배제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양육자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적 측면에서 아버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육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시작이 어려운 아버지들은 평소 영유아교사와 자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양육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정보를 아버지가 교사에게 전달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사 역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개별 영유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적절한 지도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볼 수 있다. 이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영유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더 많고 정확한 정보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역시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교우 관계,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등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교사와의 의사소통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전문성과 교육적 접근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친절하고 자녀의 일상에 대한 세심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영유아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직한 후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사의 역할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한 안유리 외(2013)의 연구, 그리고 영유아보육협회의 조사 결과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교사들이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다는 점을 꼽았다는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전아름, 2024). 이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영유아들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며 개별 특성을 파악하고 가정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을 가지는 반면, 유치원은 영유아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유치원 교사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생각하는 유치원의 장점으로 37%의 교사들이 ‘전문성’과 ‘보호자들이 교사로 대우하는 점’을 가장 높은 장점으로 평가한 것처럼(전아름, 2024) 전문성을 가진 영유아교사로서의 장점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지는 따듯함과 친절함이라는 긍정적인 점을 더한다면 학부모 및 아버지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아버지들은 직장생활로 인하여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에 자주 방문하지 못하거나 영유아교사와의 소통 기회가 적기 때문에 관찰수첩이나 스마트알림장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도 교사와 소통하고 있었다. 자녀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에서의 자녀 모습을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을 느끼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아버지들이 전자알림장 앱의 메뉴 중 ‘앨범’기능을 가장 유용하게 인식하였음을 보고한 강명주(2019)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다만, 교사들이 매일 스마트 알림장에 사진과 글을 게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업로드를 위한 보여주기 식 사진찍기가 증가한다는 백은영(2022)의 연구와 교사들이 알림장 작성 시간을 확보해 주고 업무를 경감해주기를 바란다는 김민정과 김갑순(2012)의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지나친 사진이나 글을 게시하는 것이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아버지들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통과 정보전달에 필요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서로에게 긍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스마트알림장의 댓글 기능을 통해 교사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행동은 부모님들이 확인만 하고 무반응을 하는 것보다 반응을 해주고 댓글을 남겨주는 것이 교사들의 사기를 증진 시킨다는 임주희(2016)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버지들의 노력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영유아교사와의 소통관

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일부 아버지들은 댓글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아버지들은 이모티콘이나 말풍선 공감 등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선행연구(임혜원, 2021; 한승민, 김승인, 2024)의 결과와 유사하다. 말풍선 공감의 기능은 온라인 상에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침묵’을 ‘경청’의 신호로 변환해주며 친밀감과 신뢰감을 통해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한승민, 김승인, 2024). 이는 아버지들의 소통에 대한 의지가 없을 때 교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들은 스마트알림장 활용 시에도 원장과 같은 영유아교육기관의 관리자들이 보고 관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직접 대면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모바일 알림장에서 전체 관리자인 원장, 원감이 내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평가의 지침이 될 수 있고, 원장님의 참견과 잔소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제시한 선행연구(임주희, 2016)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기관의 직급체계 역시 직장에서의 조직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자녀에 대한 궁금증을 간단하게 묻기에는 직장 상사와 같은 원장 및 원감의 관여로 담임교사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통을 주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알림장의 기능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버지들은 급한 일이 있을 때나 아이의 문제에 대한 상담이 빠른 시일내에 필요할 때에는 스마트알림장 보다 전화를 사용한 소통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전화상담은 문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의사소통

의 요소들인 말투, 억양, 강세, 음조 등의 형식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면상담에서의 장점을 일부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아버지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자신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녀의 발달 상태와 교육적 필요를 이해하고 지원하려고 하였다. 김선진 외(2017)의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와 아버지 간의 의사소통 시 소통에 대한 요구가 아버지보다 유아 교사가 더 높으므로, 유아 교사들은 아버지들과의 소통 이전에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아버지들은 처음 교사와의 소통을 시작할 때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느꼈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소통 요구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영유아교사와의 소통 방법을 잘 모르거나 처음 시작을 어려워하고 있으므로 교사들이 먼저 라포를 형성하며 소통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 소통하면서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양육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장점에 대해 대화하는 경험이 쌓이며 부부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양육 파트너십이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부부 친밀감이 아버지와 유아의 애착관계 및 상호작용과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Belsky 외(1991)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부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를 미루거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발달을 함께 이해하며 성장을 지켜보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이 아버지와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면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및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정계숙과 견주연(2015)은 교사와 부모 간의 파트너십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버지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나 적은 내용이라도 조금씩 서로 대화를 시도하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가 생긴다는 본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2)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겪는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버지를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들과 교사와의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소통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닦쳤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교사들이 아버지를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일 때 소통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들이 엄마를 1순위로 생각하여 자신이 항상 양육자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나, 양육자로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였을 때 의도와는 달리 큰 문제로 받아들이는 상황들로 인하여 소통을 쉽게 시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연락이 문제 상황을 알리는 특별한 경우로 간주되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서석원과 이대균(2015)의 연구에서 평소에 학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만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것과 같이 아버지들이 평소 교사들과 소통을 자주 하지 않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들은 유아기에 들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진 교사의 업무 부담과 교사의 연령 및 피로도를 의식하여 소통을 시도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육교사들의 건강상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적 피로도를 호소하는 교사가 81.1%였으며 이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유통업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보고한 바 있다(김일옥, 정구철, 2011). 이처럼 영유아교사의 피로도와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과부하와 관련된 건강 문제들은 부모와의 소통을 저하하는 주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고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면 아버지 뿐 아니라 학부모와의 소통 및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직장 생활로 자녀와의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여 자녀의 일상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교사와의 대화에서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개인적인 시간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오한나(2017)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며, 아버지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부모의 역할을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소통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요청이 무시되거나 아이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상황일 때 답답함을 느끼며, 소통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교사들에게 아버지들이 어떤 내용의 소통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버지들의 요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통하되 교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를 잘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김선진 외(201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아버지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소통 시에는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며 적절한 공감능력이 요구되며, 부모와 교사가 서로 진정한 협력자

하는 자각이 부족해지면 소통의 부모의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다(정계숙, 견주연, 2015). 이는 부모와 교사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은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므로(조현진, 2016), 아버지들과의 의사소통 시에도 부모가 소통을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부모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반대편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협력관계이므로(전선희, 2015), 아버지와 의사소통 시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통보다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함께 논의하며 고민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아버지들의 요구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유아교사에게 바라는 점, 영유아교육기관의 측면에서 요구하는 점, 사회적 측면에서 요구하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에 있어 자녀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솔직하고 전문성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교사가 자녀의 일상에서 어떤 긍정적, 부정적 행동을 보였는지 솔직하게 전달해주길 바랐으며, 이러한 피드백이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선행연구(권정윤 외, 2013; 배지희 외, 2015)에서 교사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정확한 조언을 해줄 때 신뢰가 높아진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리고 아버지들 역시 자녀에 대한 관찰과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상담에 대해 소통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가 개별 영유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할 때 학부모들의

불만이 생긴다는 조명주와 장정윤(2022)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들과의 면담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개별 영유아에 대한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아버지들은 미혼교사보다는 기혼교사와의 소통이 더 편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경력 3년 미만의 교사들이 면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소통을 어렵게 느끼고 있음을 보고한 서은주와 홍순옥(2016)의 연구결과, 그리고 자녀를 키워 본 교사와의 면담이 더 도움이 되고(배지희 외, 2015), 교사 역시 양육경험이 생긴 뒤에 부모와 소통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보고한 이하정(201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교사의 경력 및 양육경험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아교사들은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자신감이 저하되기보다는 교사교육을 통해 면담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부모와 평소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버지들에게도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아버지들은 어린이집의 경우 담임교사가 자주 바뀌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동안 퇴사한 보육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이 7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 교사의 이직은 영유아들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었던 애착관계를 무너뜨려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옥희, 2004).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교사와 부모가 유아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적기에 일관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조현진, 2016) 교사의 잦은 이직율이 줄어들고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영유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영유아교사가 자주 바뀌지 않고 한 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면 가정과도 지속적

인 소통관계가 유지되고, 가정의 상황에 대해 알고 그에 맞는 개별적 피드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오랜기간 근속하는 것 역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대면소통을 더 선호하였다. 얼굴을 맞대고 이루어지는 소통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함께 가미되어 더욱 풍성한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배진한, 2010; 안인숙, 2013). 이는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과 함께 쓰일 때 전하고자 하는 의미의 원형을 전달할 수 있다는 안인숙(2013)의 연구와 조연을 얻거나 친교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휴대음성이나 문자와 같은 매체보다 면대면 소통이 가장 적합하다는 배진한(2010)의 연구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아버지들은 의사소통의 빈도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와 보육의 질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Ghazvini와 Readdick(199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민혜(2018)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영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하여 면대면으로 협력하는 것이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대화론적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소통이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버지들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사의 경력이나 육아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경험이 많고 육아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교사와 소통할 때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맹주영과 김낙홍(202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 양육 경험의 유무가 유아교사의 자질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경험은 교사 효능감으로 작용하고, 자신감있는 전문가로서의 소통이 아버지들에게 공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부 아버지들은 알림장이나 사진 공유 등의 간접 소통 방식이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들은 대면 소통에서 교사에게 맡겨지는 일이 부담스럽거나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필요 시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받는 방식이 더 좋다고 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요구가 가장 높았다는 김선진 외(2017)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교사와의 소통 경험을 가진 아버지들을 목적표집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다수의 아버지들 보다는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 생활 및 양육 참여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아버지들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소통이 어머니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아버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아의 동일한 행동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유아 역시 부모의 행동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Freeman et al., 2010), 부부의 공동역할에 대해 아버지들은 어머니와 자신의 역할을 구분하여 인식한다는 오한나(201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는 아버지들이 가정 내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영유아교육기관과의 소통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므로 부모면담 역시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평소에는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도 도움을 청할 시점을 종종 놓치게 되거나 그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전선희, 2015) 부모면담시간에 함께 아버지가 참여하는 것은 영유아교사와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의 중요성 및 자녀의 성장과 발달,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아버지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김선진 외, 2017)와 같이 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아버지가 부모면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아버지들의 면담이 더 특별한 점을 지니는 것

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모면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동일하게 다룬다고 여기며 아버지를 어머니와 동일한 공동양육자로 인식하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인식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아버지들은 여성 교사와의 소통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므로 남성 교사와의 소통 기회도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남자 유아 교사가 근무하는 영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남자 유아 교사가 남자 유아의 역할모델이 되어주고, 가정의 아빠 역할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조승현, 박희숙, 2019) 영유아교사의 성별이 아직까지는 여성에게만 한정 되어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남자유아교사의 적극적 양성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회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소통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 교육과 교사당 아동 비율을 낮추는 등 유아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육아휴직과 같은 가족 친화적 제도가 더욱 확산되고,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이는 아버지들의 직장 분위기와 문화가 부모역할 인식 및 수행에 영향을 받는다는 오한나(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양육을 책임지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은 다름지언정 정서적인 역할은 부모에게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행연구에서처럼 아버지들이 양육과 영유아교육기관 소통의 주체로 당연히 인정받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아버지들은 양육의 주체가 어머니라는 기존의 편견을 넘어서야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같은 측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아버지들은 유아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높은 대우가 주어져야 사회 전체가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사회적으로 영유아교사에 대한 낮은 인식은 교사의 자격 및 처우와 같은 근로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최은영, 2016), 교사의 이직은 낮은 급여나 복리후생보다도 어두운 면만 비추는 언론을 통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설명할 수 있다(이권형, 최종인 2021). 또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와 교사는 그들이 속한 더 큰 집단의 분위기와 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라는 거시체계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주는지에 따라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정계숙, 견주연, 2015). 이 같은 사회 전반적 시스템과 인식변화가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 및 영유아교육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어려움을 알아보았으며,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시 아버지들이 바라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해하며 교사와 협력하며 교류하고 있었다.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면담과 자녀의 등·하원 시간을 통해 자녀의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 모습 등 평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교사의 답을 들으며 안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문제들을 알게 되어 교사와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아버지 역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가정과 영유아교육기관에서

함께 일관된 지도 방법으로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바쁜 직장생활로 기관에 자주 방문하지 못하므로 홈페이지, 스마트알림장, 관찰 수첩, 전화 등의 다양한 비대면 소통방식을 활용하여 소통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아버지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어머니와 자녀의 문제에 대해 더 자주 소통하고 생각과 가치관을 맞추어 나가며 부부간의 유대감이 강화되었으며, 교사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부모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둘째,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아버지의 소통 시도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는 모습과 같이 아버지를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일 경우에 소통의 어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교사의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와 힘든 일과로 인해 지쳐 보이는 모습이 보여질 때 역시 소통을 시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바쁜 생활로 인하여 자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기주장 위주의 대화가 이어질 때 소통을 멈추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갈등 속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교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침묵을 선택하며 의사소통을 어렵게 느끼거나 포기하였다.

셋째,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신뢰 관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자녀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자녀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도 솔직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은 일관된 훈육을 위해 교사와 아버지가 같은 관점에서 영

유아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들 역시 교사와의 만남이 사람 대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간단한 일상적 대화나 친절한 대화가 편안하게 소통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한편, 일부 아버지들은 교사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어 영유아교사와 비대면으로만 소통하거나 소통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아버지를 배제하지 않고 소통에 포함해 주기를 바라며, 부모면담 시 어머니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배려를 요구하였다. 아버지들이 면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장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아야 하므로 관련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처우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관의 원장이 아버지와의 소통을 교사들에게 권하길 바라며, 담임교사뿐 아니라 기관의 다양한 영유아교사들과의 소통하기를 바랐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들은 영유아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 개별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영유아교사들이 가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기업 역시 가족 친화적인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여 아버지가 양육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랐다. 또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머니를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하는 육아의 주 양육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는 아버지들 역시 영유아교사와의 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것 역시 사회적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아버지들의 경험과 어려움에 대해 아버지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구체적인 면

담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영유아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아버지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아버지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교사와의 소통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배경을 가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버지들도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지역 및 환경적 차이가 아버지와 교사 간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와의 소통 경험이 없는 아버지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소통 경험 유무가 소통에 대한 태도와 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교사 간 소통의 다양한 양상과 필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영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아버지와 영유아교사 간의 의사소통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한 소통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아버지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소통 전략을 더욱 정교화하고,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소통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들과 영유아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에서 얻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교사 간의 소통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버지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여러 변인

들이 영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주 (2019). 전자알림장 앱을 통한 아버지와 유아교사간의 의사소통 현황 및 아버지의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실, 박용한 (2020).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과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2(2), 1-18.
- 고용노동부 (2019.12.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2023년9월30일인출>
- 고용노동부 (2023.8.16.). “아빠도 육아를 함께해요” - 고용노동부 아빠 교실 운영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396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 고혜진 (2009). 부모-교사 협력행동과 부모-교사 신뢰관계가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2024).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공수안, 여종일 (2019).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1(4), 47-67.
- 곽면선, 이상철 (2014). 영어 트위터 메시지에 나타난 공손전략 분석. 언어연구, 30(1), 1-25.
- 국립국어원 (2016. 10. 3).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에서 2023년 10월 1일 인출
- 국립국어원 (2019. 3).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에서 2024년 10월 10일에 인용.
- 권연희 (2017).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의사소통능력 및 학부모-교사 간 의사소

- 통 어려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7(1), 55-74.
- 권혜진 (2010). 영유아기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역할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친밀감의 매개효과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10(4), 87-106.
- 김근혜, 김혜순 (2013).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교육, 22(4), 111-129.
- 김낙홍 (2011).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과 역할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2), 79-98.
- 김명화, 김수향 (202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유아의 놀이성 및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 경주·포항시를 중심으로 -.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4(4), 187-210.
- 김민정, 김갑순 (2012). 어린이집에서의 알림장 이용 현황 및 이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학논집, 16(2), 61-84.
- 김민혜 (2018). 생태유아교육기관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의미 탐색: 등하원시 대화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김현주 (2013).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 한국보육 지원학회지, 9(6), 73-106.
- 김서연, 이숙희, 권미량 (2020). 유아교육기관 원장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노력에 관한 이야기. 생태유아교육연구, 19(2), 71-93.
- 김선진, 전유영, 이은영 (2017). 아버지와 유아교사 간 의사소통의 실태 및 요구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3), 289-316.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제3판.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희, 박지현 (2014).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교사 협력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4(3), 135-152.

- 김오남, 류윤석, 이유미 (2002). 유능한 부모와 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양서원.
- 김용익, 김낙홍 (2015). ‘아빠학교’의 아버지들이 양육 참여를 통해 겪은 삶의 경험 탐색. 육아지원연구, 10(2), 191-215.
- 김용훈, 이경숙 (2022).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 관련 인식 및 요구도 연구.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5(2), 73-100.
- 김은혜, 여선주 (2024).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소통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노력. 한국유아교육연구, 26(3), 91-117.
- 김일옥, 정구철 (2011).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건강상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8(-), 147-169.
- 김지원, 안선희, 이슬기 (2022). 아버지 양육 참여와 부모-교사 협력이 어머니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2), 15-27.
- 김진아 (2015).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사-부모 의사소통 현황과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과 지원. 서울: 파란마음.
- 나정숙, 이배, 김경숙 (2016). 어머니 효능감 및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이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0(96), 237-258.
- 나현정, 최미숙 (2017). 아버지 양육 참여도 수준에 따른 유아의 성역할 개념 및 창의성 차이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9(2), 1-21.
- 노상경 (2012). 유아교사-어머니 간 의사소통 저해 요인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0(73), 211-232.
- 도경민, 이희영 (201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20(4), 219-242.
- 라혜미, 이희영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참여 관련 국내 연구동

- 향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4(2), 246-262.
- 맹주영, 김낙홍 (2020). 자녀 양육 경험을 통한 기혼 유아교사의 교사 자질 변화 탐색. 한국유아교육연구, 22(3), 315-340.
- 박명호 (2012).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아버지의 인식과 요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경 (2017). 전자알림장을 통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현황 및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사빈 (2019). 어린이집 학부모 민원 유형과 원장의 대처방안 모색. 한국영유아보육학, 0(117), 127-152
- 박선희 (2017).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바람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2), 151-160.
- 박은혜 (2020). 열린어린이집에 참여한 아버지와 교사의 변화에 관한 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경 (2017).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유아의 리더십 및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영유아교육지원연구, 2(1), 21-55.
- 박익새, 남은영 (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 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5-153.
- 박주미, 전유영 (2024). 아버지의 온라인 양육 참여와 부모역할만족도 간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26(1), 123-146.
- 방명애, 황성엽 (2008).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와 장애아동 어머니의 의사소통 빈도, 만족도 및 심리상태에 대한 인식 비교. 유아특수교육연구, 8(1), 75-92.
- 배윌미, 조유진 (2014). 유아교사의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연구: 의사소통 어려움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1), 323-340.
- 배인자, 위수경 (2004). 유치원에서 어머니 - 교사 의사소통과 유아의 사회적

- 능력간의 관계. 영유아교육연구, 7(-), 25-47.
- 배지희 (2002). 유아교육과 부모참여의 의미와 실제에 대한 문화기술적 탐구. 유아교육연구, 22(4), 5-29.
- 배지희, 김신영, 이수영 (201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버지 참여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기대. 유아교육연구, 36(2), 271-294.
- 배지희, 방혜경, 권미혜 (2012). 유치원 초임교사의 부모참여 경험 분석. 아동교육, 21(3), 49-66.
- 배지희, 이유희, 임미선 (2015). 자녀의 문제행동 관련 부모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의 경험과 요구. 유아교육연구, 35(5), 475-497.
- 배지희, 이윤영, 조연경 (2013).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부모면담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과 경험. 유아교육연구, 33(5), 89-114.
- 배진한 (2010).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 적합성 인식의 매체 간 비교연구. 언론과학연구, 10(4), 226-266.
- 백은영 (2022). 영아교사의 스마트 알람장 사진 게시로 인한 어려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9(2), 95-123.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 조사 보고-. 세종시 : 보건복지부.
- 사영숙, 이대균 (2017). 어머니와 교사의 마주이야기 수첩의 기록의 의미. 열린 유아교육연구, 22(3), 71-97.
- 서미정, 최은실 (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 양육 참여의 변화양상. 유아교육학논집, 21(5), 377-397.
- 서석원, 이대균 (2014).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서석원, 이대균 (2015). 학부모 불만해결 과정에 관한 유아교육기관 교원의 경험.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777-809.

- 서수진, 도미향 (2019).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행복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4(3), 353-372.
-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24). 2024 단위유치원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을 위한 유치원 평가 가이드북.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 서은영, 서현 (2018). 유아교육기관의 스마트 앱을 활용한 알림장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실태. *한국유아교육연구*, 20(2), 197-219.
- 서은주, 홍순옥 (2016). 부모면담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교육적 요구. *유아교육학논집*, 20(1), 353-374.
- 서종옥, 광승주 (2018). 스마트알림장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영아 어머니와 교사의 의사소통 탐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7(2), 59-101.
- 서현, 서경희, 정은숙 (2012).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머니와 교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탐색.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2(-), 342-342.
- 서현선, 최선경, 배지희 (2019). 영유아교사와 부모 간 의사소통 연구동향. *열린 유아교육연구*, 24(1), 247-267.
- 손영숙 (1995).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논문집*, 23(1), 279-288.
- 신계연, 장경은. (2024).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유아 간 친밀한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44(2), 119-144.
- 신명숙 (2012). 유치원에서의 아버지-교사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숙 (2017).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아버지교육 현황 및 요구도 조사.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인정, 곽승주 (2020). 영유아교사에 대한 어머니의 교권인식 수준과 어머니-교사 관계 및 교사역할기대 간 관계 분석.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0(1), 301-303.
- 심규성 (2007). 한국어 교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 : 교실 상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수아 (2021).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수준이 부모의 기관신뢰 및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경 (2019).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에서의 언어적·비언어적 공손 전략 분석. 담화와 인지, 26(2), 49-66.
- 안선희 (2010). 어머니의 보육지식과 어머니-교사 의사소통과의 관계. Human Ecology Research(HER), 48(2), 1-12.
- 안수영, 이명신 (2020).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14(1), 3-25.
- 안승희, 이희선 (2024). 유아교육기관 원장이 경험한 학부모 관계의 어려움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문화와 융합, 46(2특별호), 383-401.
- 안유리, 여인우, 신주은, 이대균 (2013).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직한 교사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연구, 12(2), 47-71.
- 안인숙 (2013).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강화 양상 연구. 국어문학, 54, 51-75.
- 양성연 (2010). 국공립 보육시설 영유아의 아버지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희 (2009). 유치원의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역할수행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6), 417-442.
- 양진희 (2012). 장애유아의 어머니와 교사의 어머니-교사 간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의 의미와 요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4), 355-389.

- 오영희 (2019).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이집 부모참여 경험탐색.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한나 (2017).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 역할 인식 및 실천에 대한 비교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9(4), 143-170.
- 우서경, 이은미, 이소현, 이현선 (2016).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임교사의 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포괄영유아, 아동교육지원연구, 4(2), 1155-14.
- 우정순 (2016).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교사 간 의사소통 탐색. 영유아교육지원연구, 1(1), 67-87.
- 우진경 (2022). 학부모 상담 실행에서 유아교사의 정서적 경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8), 53-71.
- 유구종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 스마트교육 및 매체. 파주: 정민사.
- 유지현, 박정현 (2018). 남녀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과 아버지 양육 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MeFOT 창의인성연구, 6(1), 65-84.
- 유현정, 안지혜 (2010). 보육교사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교사효능감과의 관계. 아동보육연구, 6(2), 39-53.
- 육아정책연구소 (2023). 2022 영유아 주요 통계 (연구자료 23-01). 육아정책연구소.
- 이권형, 최종인 (2021).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직률 개선 방안 연구. KBM Journal(K Business management Journal), 5(2), 77-93.
- 이귀옥, 이주경 (1998). 유치원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論文集, 19(1), 265-285.
- 이대균, 김주영, 임자영, 박지선 (2010). (유치원 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파주: 양서원.
- 이미자, 문혁준 (2008). 교사-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29(1), 1-14.
- 이미현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4(4), 265-285.
- 이배, 김경숙 (2013). 아버지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아동교육*, 22(3), 191-206.
- 이병호 (2014).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육아지원연구*, 9(3), 119-142.
- 이서영, 이유미 (2024). 영아기 자녀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어머니-교사 협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7), 775-791.
- 이선미 (2010).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버지교육에 대한 운영실태 및 인식.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애, 강혜경, 김정량, 김유진 (2024). 영유아교사를 위한 부모상담의 이론과 실제. 정민사.
- 이승은 (2018).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 양육 참여 및 유아의 공격성과 관계 연구. *인격교육*, 12(2), 69-94.
- 이영희 (2006).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및 양육 참여도와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 이지영 (2022). 아버지, 어머니, 교사, 또래 관계가 유아 행복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보육연구*, 15(1), 79-100.
- 이조은, 조희숙 (2015).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부모-교사 소통의 의미와 양상: 카카오톡 활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5(3), 197-222.
- 이주경 (1996). 유치원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22). 유아 교사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겪는 어려움 및 요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백지희, 성지현 (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어머니-유아교사 간 의사소통 태도와 빈도의 매개효과. *아*

- 동학회지, 39(3), 33-44.
- 이지인 (2020). 어머니 양육 참여와 아버지 놀이참여가 자녀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9), 1431-1453.
- 이하정 (2017). 면세판매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 개인인지사고특성,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성 연구. 관광연구, 32(8), 251-271.
- 이현정, 김낙홍 (2017). 영유아교사의 조직 내 의사소통과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163-186.
- 임옥희 (2004). 보육교사의 교육신념과 직무만족. 한국가정과학회지, 7(1), 101-111
- 임우영, 안선희 (2011). 유아교사-부모 협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4), 323-350.
- 임주희 (2016). 모바일 알림장을 활용한 교사와 부모의 의미 탐구. 한국유아교육연구, 18(2), 21-41.
- 임지희 (2014).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원 (2021). CMC 환경에서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이모티콘.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7(11), 219-229.
- 장문규 (2005). 어린이집의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아버지의 인식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경, 안효진 (2014). 아버지가 인식한 양육 참여에 따른 부부 공동양육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영유아교육과정연구, 4(2), 61-77.
- 전선영 (2015). 커뮤니케이션 앱을 활용한 교사-어머니 의사소통 경험. 한국유아교육연구, 17(2), 101-134.
- 전선희 (2015).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부모와의 협력작업. 발도르프교육

- 연구, 7(1), 21-40.
- 전아름 (2024.7.17.). 유치원 선생님이 왜 어린이집으로 이직할까... "어린이집+유치원 장점 결합해야"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19>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 정계숙 (2011). 유아교사의 어머니-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 관련 변인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3), 143-164.
- 정계숙, 전주연 (2015). 가정-유아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실태와 형성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과 바람: 따뜻한 교육공동체의 토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103-127.
- 정금자, 박미라 (2013).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0(80), 43-64.
- 정미라, 김민정, 강수경 (2016). 아버지 공감능력, 양육 참여 및 영아기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연구. 육아지원연구, 11(1), 53-71.
- 정윤귀 (2006).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교사 간 의사소통 내용과 방법의 현황, 만족도 및 요구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혜, 최은실 (2018). 아버지 양육 참여가 걸음마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0(4), 1-29.
- 정은희 (2014). 학령전기 자녀를 둔 가정의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승 (2006).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표현 양상. 영미어문학, 81, 225-249.
- 정혜승 (2010). 유치원에서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용 실태 분석. 한국유아교육연구, 12(-), 195-240.
- 정효진 (2013).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내용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정 (201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 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 양육 참여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8(1), 97-120.
- 조명주, 장정윤 (2022).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 불만 접수 실태조사. 한국 유아교육연구, 24(4), 148-175.
- 조미영 (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참여 활동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승현, 박희숙 (2019). 유아교육기관의 남자 유아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변화 연구. 영유아보육교육연구, 2(2), 43-60.
- 조유진 (2017). 아버지와 영아교사의 의사소통 실태 및 요구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해경, 고영미, 조부경 (2011). 유치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사-어머니 상호작용이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 연구, 10(3), 225-248.
- 조현진 (2016). 부모-유아교사 간 의사소통에 관한 부모의 경험.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영문, 이성주 (2019). 초임영유아교사의 교직생활 어려움과 지원요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1051-1071.
- 최미숙, 박영미 (2004). 유사교사와 어머니 의사소통에 대한 상호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9(2), 137-160.
- 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13-332.
- 최서영, 이대균 (2014). 사립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와 협력 증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노력. 유아교육학논집, 18(2), 159-186.
- 최은영 (2016). 유치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 교직원, 부모의 경험과 인식. 열린부모교육연구, 8(1), 199-216.

- 최지은, 김현경 (2019).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아버지의 신체적 · 정신적 적응: 생활시간조사와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한 시대, 연령, 코호트 간 차이 분석. *한국사회학*, 53(3), 1-41.
- 통계청 (2022.12.21.).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600&bid=11814&act=view&list_no=422530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 한국보육진흥원 (2024).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매뉴얼. 서울.
- 한국보육진흥원 (2020). 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서울.
- 한승민, 김승인 (2024). CMC 환경에서 공감적 대화를 위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메시지 리액션 기능: 카카오톡 ‘말풍선 공감’을 중심으로.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13(1), 111-124.
- 한진원 (2020). 유치원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교사-부모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열린유아교육연구*, 25(5), 383-403.
- 홍희광 (1992).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기본적 고찰. *영어영문학*, 11(1), 263-282.
- 황하성, 이옥기 (2009). 수용자 특성에 따른 모바일의 매체풍요도 인식 및 이용의 차이. *한국언론학보*, 53(2), 300-324.
- 황희숙, 김은희, 주희진 (201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지능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2), 409-430.
- Anthony, E. J., & Pollock, G. H. (1985). *Parental influences in health and disease*. Little, Brown.
- Belsky J, Youngblade L, Rovine M & Volling B (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487-498.

- Bredekamp, S., & Shepard, L. (1989). How best to protect children from inappropriate school expectations, practices, and policies. *Young Children*, 44(3), 14-24.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Cabrera, N.J., Tamis-LeMonda, C.S., Bradley, R.H., Hofferth, S., & Lamb, M.E. (2000). Fatherhood is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 127-136.
- Condon, J. C., & Yousef, F. (1975). *An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 Bobbs-Merrill.
- Endsley, R. C., & Minish, P. A. (1991). Parent-staff communication in day care centers during morning and afternoon transi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2), 119-135.
- Epstein, J. L. (1996). Advances in family, community, and school partnerships. *Community Education Journal*, 23(1), 10-15.
- Epstein, J. L. (2001).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Westview Press.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W. W. Norton & Company.
- Fields, M. V., Meritt, P. A., & Fields, D. M. (2023). 제7판 구성주의 유아생활지도 및 훈육 (*Constructive Guidance and Discipline Birth to Age Eight*). (이희영 외, 역). 경기도 파주: 21세기사. (원저 2018). Pearson Education.
- Freeman, H., Newland, L.A., & Coyle, D.D. (2010). New directions in father attach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2), 1-8.
- Freytag, C. E. (2001). *Teacher-parent communication: Starting the year off*

right. A paper presented at the 43rd biennial convocation of the Kappa Delta Pi International Honor Society in Education, Orlando, Florida.

- Gelfer, J. (1991). Parent-caregiver partnership enhancing communication. *Childhood Education, 67*, 164-168.
- Ghazvini, A., & Readdick, C. (1994). Parent-caregiver communication and quality of care in diverse child care setting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 207-222.
- Kraft, M. A., & Dougherty, S. M. (2013). The effect of teacher-family communication on student engagement: Evidence from a randomized field experiment. *Journal of Research on Educational Effectiveness, 6*(3), 199 - 222.
- Saldaña, J. (2012). 질적연구자를 위한 부호화 지침서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박종원, 오영립 역). 서울: 신정, (원저 2009). Sage.
- Winkelstein, E. (1981). Day care/family interaction and family satisfaction. *Child Care Quarterly, 10*, 334-340.

ABSTRACT

Fathers' experiences of and requests for communication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Won-kyung, Yoo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eriences, difficulties, and requests of fathers in communicating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Through this study, we aim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father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hat are fathers' experiences in communicating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2. What difficulties do fathers experience in communicating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3. What are fathers' requests for smooth communication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In this study,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0 fathers who live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and currently send their childre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terviews were conducted 2-3 times per research participant, for a total of 23 times. The interview

format consisted of a combination of semi-structured questions and open-ended questions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First, fathers learned new things about their children's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rough communication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shared information about their children, and experienced cooperation and problem solving with teacher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y experienced communication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using various communication methods such as smart notice boards, observation notebooks, and telephones.

In addition, fathers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through communication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They gained an understanding of their role as fathers and a sense of intimacy with their children, strengthened the bond between couples and enhanced parenting partnerships, and built trust with teachers, leading to the activation of parental participation.

Second, fathers experienced communication difficulties due to situations in which they felt uncomfortable with fathers, such as prioritizing mothers over fathers or misunderstanding fathers' intentions during communication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They also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increased workload and burden on teachers and that communication was difficult when teachers were in difficult situations.

In addition, fathers said that it was difficult to continue conversations with teachers when they did not know their children well due to their busy lives. when early childhood teachers' communication focused on asserting themselves, they felt it was difficult to continue communication, and when conflicts arose, fathers chose mediation and silence to protect their children.

Third, fathers wanted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about their

childre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based on trust and expertise in order to communicate smoothly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They also hoped that teachers would work at on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for a long time teachers would not change frequently for continuous and consistent education. Some fathers also preferred non-face-to-face communication because they felt awkward meeting teachers face-to-face. And fathers demanded time and space for fathers to be included in parent interviews conducted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without being excluded, and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director and teachers. They also hoped with various teachers such as the director and principal, extended class teachers, and after-school teachers, rather than the long time teacher. Meanwhile, some fathers thought that smooth communication would be possible if there were male early childhood teachers.

Finally, fathers pointed out the problem of the high proportion of infants and toddlers taught by one teacher, and said that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that allows individual support should be established. They said that companies should establish a family-friendly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hat a change in social perception of childcare that is shared across society is necessary.

Based on these results, the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the study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fathers from more diverse regions and backgrounds.

Second, long-term and objective research is needed to verify the actual effects of communication between fathers and teachers on children's develop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d what fathers experience and what difficulties they face through communication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to ensur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fathers, listened directly to the stories of fathers regarding their requests, and interpreted the meaning of the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that enables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not only mothers but also fathers and early childhood teachers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 ◆ 연구제목 :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어려움 및 요구
- ◆ 연구책임자 : 윤원경(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어려움 및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며 기관의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 의사소통을 경험한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후 교사들이 유아교육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어려움 및 요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적연구로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만 0~5세 아버지들이 면담대상자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3. 연구 참여자의 역할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주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면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① 연구자는 귀하가 편하게 여기는 인근의 조용한 장소를 미리 약속한 뒤, 약속장소에서 실시 될 것입니다.

②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60분 정도입니다. 면담내용을 귀하의 동의 하에 녹음되어 전사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면담은 2023년도 10월 1일 ~ 2024년도 10월 30일 중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의해 이루어지며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2차 면담 후 추가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달 이내에 사전 약속을 하고 추후 면담을 요청 드릴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나 불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참여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 요소 및 보상 방안

연구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요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혹시 연구자가 하는 질문에 불쾌감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 연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면담 중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신상에 대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지켜집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본 연구를 통해 귀하께서 제공하여 주신 정보는 유아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아버지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① 본 연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연락처, 일반적 배경입니다. 연구보고서 작성 및 학회지나 학회에 논문이 공개될 때 모두 가명을 사용할 것이며, 연락처 정보는 추후면담을 위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② 모든 정보(면담기록 등)는 연구를 위해 5년간 보존·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 ③ 이 연구에서 얻어진 조사자료는 논문, 보고서 등에 인용될 것이나,

귀하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자로부터 얻은 모든 자료들은 보안 가능한 파일에 안전하게 비밀리에 보관될 것이며, 이 자료들은 연구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 ④ 본 조사에서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조사자료는 현행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및 학술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⑤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⑥ 귀하께서 '동의함'에 체크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 될 것입니다.
- ⑦ 연구 종료 후 연구 관련 자료(기관위원회 심의결과, 서면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현황, 연구종료보고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됩니다. 보관기간이 끝나면 컴퓨터 DB의 영구삭제 및 문서 영구 파쇄의 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10. 연구관련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책임 연구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윤원경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	-----	---------------------

지도교수	배지희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	------------------

연구참여자용 동의서

◆ 연구제목 : 영유아교사와 아버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어려움 및 요구

◆ 연구책임자 : 윤원경(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
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이해했으며, 이와 관련된 나의 질문에 만
족할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면담에 응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연구 참여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